OLP JOURNAL

Opinion Leaders Program 저널 **March 2015** VOL.16











발간사
OLP 17기 성대영 회장

신년사
OLC 5대 장재진 회장

OLP가 보는 세상
설문조사 외

OLP Special
2014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OLC 골프대회
OLC 산악회

OPINION LEADERS CLUB
SOGANG UNIVERSITY

Beyond the First

국내최대증권사가 된다는 것

(총자산 1위, 자기자본 1위 / 2014년 9월 금감원 공시기준)

그것은

대한민국 금융과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는 것

업계를 리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미션이 생겼다는 것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0386호 (2015.01.20~2015.12.31)

우리투자증권이 NH농협증권과 함께 **국내최대증권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총자산 1위, 자기자본 1위 / 2014년 9월 금감원 공시기준)

증권업계 최초로 NH투자증권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피싱, 해킹, 금융사기보장 서비스인 **'증권계좌안심보장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만나보세요
(선착순 3만명에 한함)

www.nhwm.com

NH투자증권

미래를 함께 하는 더 좋은 금융

신한금융그룹

" 그때, **좋아요**로
유명한 그 회사에
투자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



더 큰 세상을 향한 당신의 투자,
해외투자를 잘 아는 회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10년간의 해외투자 노하우와 3년 연속 리서치 1위 증권사
신한금융투자와 시작하세요

전 세계 25개국 24시간 거래상담 서비스 **매경/한경 리서치 3년 연속 1위**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전 지점 거래 가능**

24시간 해외투자상담 02) 3772-2525 www.shinhaninvest.com

※ 해외주식은 투자가능 외화증권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 매매방식 차이로 개별증권 관련 투자정보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주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전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 가치변동으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6213호 (2015-02-12~2016-02-11)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실외 미세먼지 수치

(가상의 **실외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4색 청정도 표기 ※ 종합 청정도 4단계 색상 표기는 환경부 미세먼지 예보 등급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좋음 0~30 | 보통 31~80 | 나쁨 81~150 | 매우 나쁨 151~ (미세먼지 (PM10) 농도 (㎍/㎥))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3	87	154	45	98	19	16
33	153	91	24	107	43	9
125	36	14	97	159	76	142
167	136	162	26	38	101	63
82	34	27				

어떤 날에도 우리집은 미세먼지 안심

날마다 미세먼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제어하는 새로운 공기청정의 시작



AX70J7000WTD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눈에 보이는 청정으로 달라진 기후에 답하다

삼성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AX7000

air 3.0 PROJECT

- 공기상태를 색상과 숫자로 확인하는 **air 3.0 DISPLAY**
- 듀얼 파워팬과 강력한 전면흡입으로 **더 넓고 빠른 청정**
- 큰 먼지에서 가스,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PM2.5 헤파필터 시스템**

삼성전자 SAMSUNG











Global First Partner

글로벌 파트너 – 오리엔트 그룹

사업분야 바이오, CRO, 정밀기계, 신소재개발, 시계
전력전자, 엔지니어링, 자동차정밀부품

ORIENT 오리엔트 그룹

ORIENT BIO ORIENT ELECTRONICS ORIENT PRECISION INDUSTRIES pregen
ORIENT Watch ORIENT PLASTICS CONSTRUCTION GENIA MDAS ZEU GLOVIS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가치창출(Creative),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도전(Challenge) 그리고 최고(Champion)를 지향합니다.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열두번째 이야기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창의적이라는 말을 듣진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기 때문이죠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DOOSAN



라이트형제의 첫 비행 장소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세계로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파트너!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SolutionPartner



앞선 기술마다
LG화학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도 수많은 화학이 필요하듯이
세상의 모든 기술, 화학이 완성합니다
석유화학, 정보전자소재, 전지까지 –

LG화학의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더 앞선 삶을 누리세요

LG화학

OLP JOURNAL
Opinion Leaders Program











발행인 장재진 / **발행처** 사단법인 OLC(Opinion Leaders Club)
발행일 2015년 3월 12일 / **통권** 제16호 / **등록번호** 서울 사 01993
편집장 안미현 / **고문** 정세용 · 이세정 · 이의춘
편집위원 김광기 · 김 석 · 김홍익 · 이용문 · 허원순
OLC사무국 031-730-6012
기획/제작 (주)성우애드컴(www.swadcom.co.kr) 02-890-0900

* 'OLP(Opinion Leaders Program)'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기업체 간부와 전문직 중견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제, 경영전문과정입니다.

* 〈OLP JOURNAL〉은 'OLP'를 수료한 멤버들이 경제, 경영 현안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언론인들의 상호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작하는 저널입니다.

4 **발간사** _ 성대영

6 **신년사** _ 장재진

OLP가 보는 세상
10 2015년 한국경제 진단 _ 김 석
12 2015년 바뀌는 노동관련 제도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망 _ 이철행
16 인구절벽 넘을 희망의 구름다리 _ 김광기
18 D의 시대? 그래도 희망과 의지를! _ 허원순

OLP Special
22 2014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_ 허원순
26 제13회 OLC 골프대회, 고원에서 즐긴 자연주의 힐링 골프! _ 김홍익
32 서강대 OLC산악회와 떠난 백두대간협곡열차 _ 호미숙
36 OLC산악회와 함께한 서울여행 _ 호미숙
41 OLC대상 수상자 인터뷰 _ 편집위원
44 불모지 구로공단, 아시아 최대 도심형 아울렛 탈바꿈시킨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 _ 이의춘
48 OLP 18기 졸업여행 _ 신혜선
52 OLP 18기 박필준 회장 인터뷰 _ 박성호

OLP Essay
56 아들의 꿈은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다 _ 유복환
58 눈과 입이 호사한 남도여행 _ 김수영
60 소통의 미학 그리고 OLP _ 이정우
62 총알보다 더 무서운 포퓰리즘 _ 유택형
64 평안들 하신가요? _ 김수경

68 **OLC News**
화합하는 OLC의 중추, 신구회장단교류모임 _ OLC사무국
70 서강 OLC 밴드 '더 늦기 전에' _ 송규일

OLP 18기 입학안내 / OLP를 말한다
OLP 18기 박필준 회장
OLP 18기 성환두 사무총장



글_ **성대영** OLP 17기 회장

봄을 재촉하는 비가 창문 밖의 병원 정원에 촉촉히 적셔진다. 아직 쌀쌀한 날씨지만 바깥 공기는 차갑지가 않게 느껴진다. 하긴 입춘이 지난 지가 벌써 수주일 됐으니까, 절기는 벌써 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직종은 토요일인 오늘도 공휴일이건만 병원이라는 의료직종은 구정의 휴일이건만 오늘부터 진료시작이다.

집무실 창 밖에서 물끄러미 내다보는 정원의 봄 소식이 갑자기 더 궁금해졌다. 우산을 뒤집어 쓰고 정원으로 나왔다. 나뭇가지도 유심히 살펴보고 하단의 풀들도 살펴보았다. 나뭇가지의 잎눈은 벌써 도톰해졌지만 아직 화단의 풀은 기미가 없어 보였다. 봄의 시작은 나뭇가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5층 병동의 하늘공원도 궁금해졌다. 그곳은 실내와 연결되어 있어서 훈훈한 공기 때문에 분명히 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빼꼼히 문을 열고 하늘공원을 들어가는 순간 역시 바깥 정원의 공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두리번 두리번 이곳 저곳을 살펴 보았다. 옆 모퉁이에 길다란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순간 깜짝 놀랐다. 작년 가을에 만발했던 국화꽃을 치운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파릇한 새순이 쑥갓처럼 많이 자란 모습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화분 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라, 이거 봐라.

벌써 미세한 잡초에서 이름 모를 꽃이 봄 처녀의 귀걸이처럼 납작 엎드려 펴고 있었다. 무심한 내 감성보다 미물의 잡풀에서 먼저 세월을 인지한 것이었다.

가만히 지난해를 돌이켜 보았다. 주변에서, 국가에서도 2014년에는 많은 사건들로 인한 변화가 있었다. 온통 국민들을 슬픔 속에 집어 넣었던 세월호 사건부터…





예측했던 대로 경제 상황도 별반 좋아진게 없고 오히려 허리띠를 더 졸라 매어야만 할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글로벌화된 강대국과의 경쟁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결국 우리 OLC원우님들도 지난 일년 한 해가 어려웠으리라 짐작해본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문구가 생각났다. '생일과 관계없이 온 국민이 나이 한 살씩 더 먹는 한 해가 또 시작됐다'라는 어디서 봄직한 문구가 떠오른다.

올해는 청양의 해라고 한다. 양의 유순한 성품과 푸른색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을미년 새해에 OLC 동문 원우님들의 새해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해본다.

며칠 전에 OLC 사무국에서 상냥한 여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예상치 못했던 OLP 저널의 발간사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숙제를 주고서 2월 말까지 제출하란다. 발간사를 지난번 기수 회장이 써야 한다는 것을 본인은 잊고 살았던 것이 OLC 행사에 적극적이지 못해서 인지 하지 못한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무척 미안한 마음을 안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동참을 본인 스스로 촉구해본다. 돌이켜보면 OLC의 회원들인 우리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만이 OLC의 무궁한 발전의 지름길인 것을 잊고서 잘 되지 않는 것을 탓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14년은 정말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경기의 하향곡선을 겪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특히 내수경기를 경영하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2015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2015년일 것 같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벌써 2012년에 2050클럽에 가입한 경제강국이 아니던가.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OLC 회원님들의 분발을 촉구해 본다.

권두언을 잘 쓸 엄두가 안나서 지난 호의 OLP 저널을 들춰보았다. 대외 정세를 예측해보는 논문부터 회원들의 동정과 집행부의 성과 등이 잘 설명되 있었다. 우리 OLC 회원들은 각자 활동하는 산업 분야가 정말 다양하다. 꿈과 소망도 다양하리라…

2015년의 한 해도 어두운 경제전망들도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하고 이겨낸 무심한 식물들도 결국은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이 미물보다 못한 게 뭐 있을까. 더구나 우리 OLC 회원들은 각 분야에서 능력과 역량을 인정받은 인재들이 아닌가. 결코 만만치 않을 2015년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잘 버텨나갈 만반의 준비와 각오들이 충천할 것이기 때문에 멋진 을미년 청양의 한 해의 대미를 장식 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력하지만 본인도 OLC 원우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파이팅을 응원합니다. **OLP**





글_ **장재진** OLC 5대 회장

乙未年

OLC 원우 여러분, 청양의 해인 을미년 2015년을 맞이하여 행운과 만복을 한껏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항상 감사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OLC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해 주신 모든 원우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좀 더 많은 원우님과 만나서 소통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둡니다. 2015년은 감사함은 두 배가 되고, 아쉬움은 뿌듯한 성취감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4년을 청마의 기상으로 활기차게 시작하자고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기대하고 희망한 것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활기를 잃은 경제와 산업 부문의 회복은 더뎌, 일본형 장기 불황인 "잃어버린 20년"을 우려하는 걱정은 깊어지고, 연금구조 개혁과 무상복지의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청년 실업의 증가와 인구 감소의 가속화가 가져온 사회 전반의 활기 저하는 대한민국호의 과감한 개혁과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의 양대 기둥으로 급성장한 중국과 오랜 기간의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이라는 과제도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앞세운 군사적 위협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5년에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한 압축적이고 생동감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전국민의 눈물 겨운 투지로 IMF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2015년을 맞이해 극적인 반전을 기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화합을 이룩하고, 경제적 활력의 열쇠가 되는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를 독

려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국가적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소통, 언어와 종교와 이념을 아우르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파를 초월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이야기합니다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려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의 해를 맞이해 새삼스럽게 소통을 화두로 삼는 것은 올해가 갖는 남다른 의미 때문입니다. 청을 뜻하는 푸른 색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매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사는 순한 동물인 양은 단체 생활을 잘하고 이해와 배려로 상호간에 관계가 원만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의 푸른 기운과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로 원만한 관계로 집단의 힘을 고양시키는 양의 장점이 잘 어우러진 절호의 시기가 2015년입니다. 새해에는 각자의 주의주장을 앞세우기 보다는 먼저 경청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국민적 힘을 결집해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찾는 활기찬 소통이 전개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활약하시는 우리 OLC 원우들께서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좋게 생각되는 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을 나눈다는 점입니다. 덕담은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기분 좋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2015년에는 매일매일이 새해 첫날인 것처럼 서로 덕담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OLC 원우님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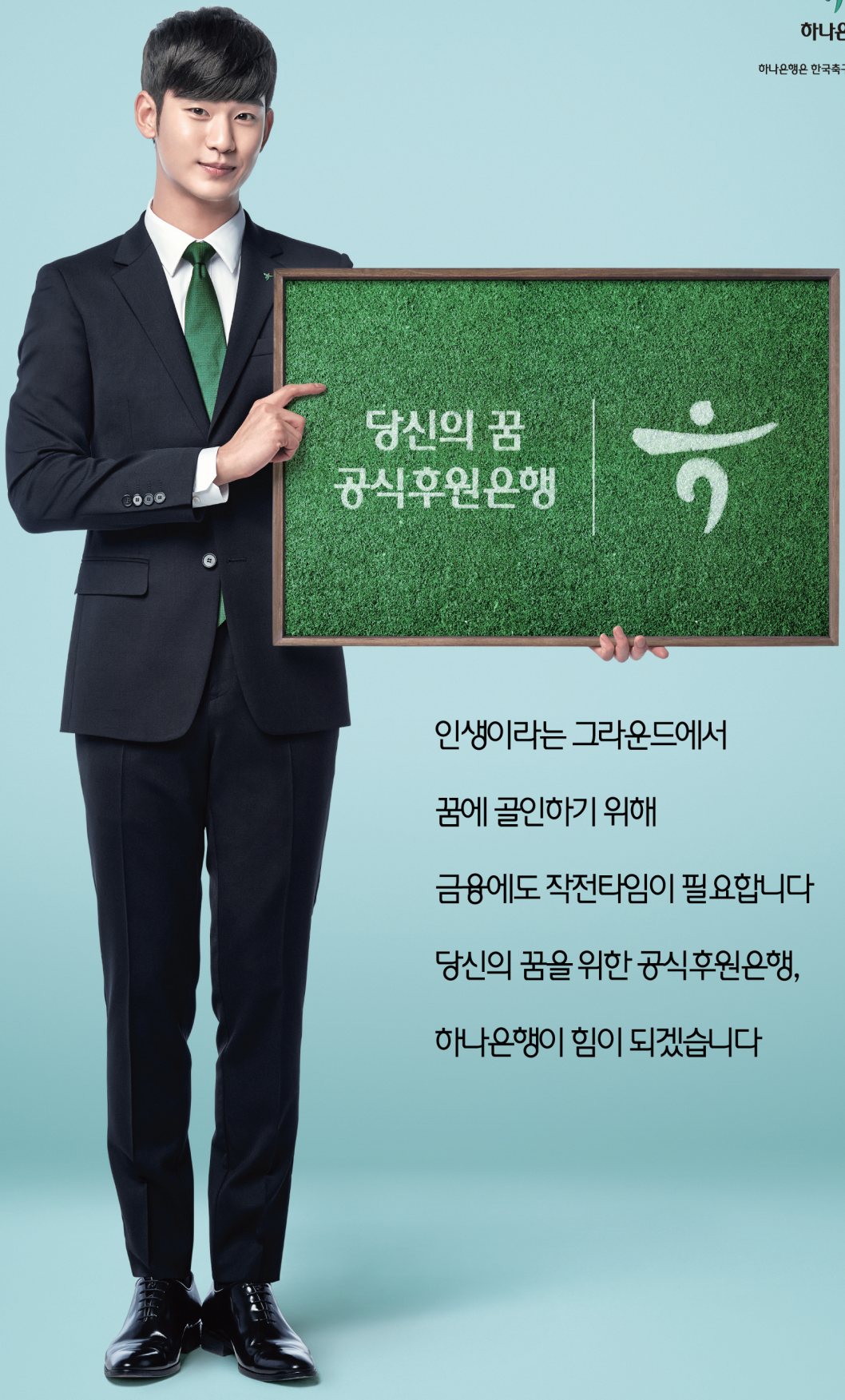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OLP**



대한민국 행복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 KFA

하나은행은 한국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은행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서

꿈에 골인하기 위해

금융에도 작전타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꿈을 위한 공식후원은행,

하나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목돈만들기 작전타임
결혼자금 / 자녀교육자금 / 자동차구입자금

긴급자금 작전타임
창업자금 /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은퇴자금 작전타임
노후자금 / 자녀결혼자금 / 상속증여 / 여행자금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은행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4-1400호(2014.04.14) / CC브랜드-140415-63

OLP가 보는 세상



설문조사
김 석 경향신문 디지털뉴스 팀장(OLP 12기)

2015년 바뀌는 노동관련 제도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망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OLP 10기)

인구절벽 넘을 희망의 구름다리
김광기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본부장(OLP 3기)

D의 시대? 그래도 희망과 의지를!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OLP 12기)

2015년 한국경제 진단

– OLP 원우에게 묻다



글_ 김 석
경향신문 디지털뉴스 팀장(OLP 12기)

OLP 회원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 ~ 3.5%로 내다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새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는 디플레 심화 가능성과 가계부채를 꼽은 회원들이 가장 많았다. 2015년에도 화두는 경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저하, 실업률 증가 등 '쌍끌이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내리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오던 중국의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도 저유가와 서방의 경제제재 여파 등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머징 마켓도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만 밝은 편이다. 이같은 대외 여건은 모두 한국 경제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미국은 금리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펴고 있는 엔저 정책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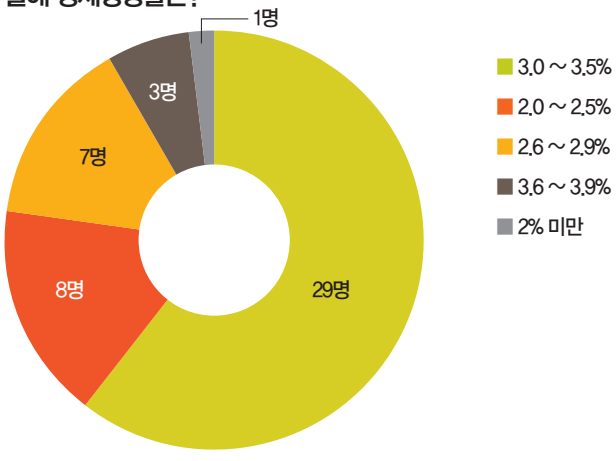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던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OLP저널은 2015년을 맞아 회원들에게 새해 경제전망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총 49명의 회원들이 응답했다.

첫번째 질문은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KDI는 당초 3.8%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내려잡은 바 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명이 3.0~3.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8명)과 2.6~2.9%(7명)가 뒤를 이었다.2%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명 있는 등 KDI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3.6~3.9%의 경제성장을 내다본 회원은 3명이었고, 4.0%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주택시장 등 부동산 경기전망도 어둡게 보는 회원이 많았다. 27명이 현 상태 유지라고 답했고, 13명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닥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자는 6명에 불과했다. 2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추가 활성화 조치 필요없

올해 경제성장률은?



다'는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14명이 '양도세 · 취득세 감면 연장'을 꼽았고, 11명은 '종부세 폐지 등 중과세 손질'을 들었다. 'DTI · LTV 추가 완화'를 든 응답자가 3명이었고, 1명은 '금리 추가 인하'를 들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는 디플레 심화 가능성,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과 세계 각국의 환율 전쟁이 꼽혔다. 우선순위를 정해 세 개까지 선택하도록 한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것은 미국 금리인상과 세계 각국의 환율전쟁(1순위 9명, 2순위 12명, 3순위 7명)이었다.

디플레 심화 가능성은 가장 많은 14명이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는 10명, 3순위로는 2명이 이 항목을 선택했다. 가계부채도 총 25명(1순위 11명, 2순위 7명, 3순위 7명)이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봤다. 구조조정 지연 따른 경제체질 악화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도 8명에 달했다. 공공개혁 반대 등 노동계 동향은 총 17명이, 일자리 부족은 총 16명이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최경환 경제팀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 연금 및 공공개혁', '가계부채 연착륙'을 꼽은 회원이 많았다. 우선순위를 정해 세 개까지 선택한 이 질문에서 '일자리 창출'은 총 27명(1순위 9명, 2순위 10명, 3순위 38명)이 뽑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다.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은 12명이 1순위로 꼽은 '공무원 연금 및 공공개혁'(2순위 6명, 3순위 5명)이었다. '가계부채 연착륙'은 1순위로 9명, 2순위 6명, 3순위 2명이 택했다.

이밖에 총 16명이 '소비진작'을 들었고, 15명이 신성장 동력 창출, 14명이 기업 기살리기, 13명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꼽았다. 원달러 환율 예상치를 묻는 질문에는 1,000원대 중반(1,034~1,066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원대 초반(1,001~1,033원)이 14명, 1,000원대 후반(1,067~1,099원)이 1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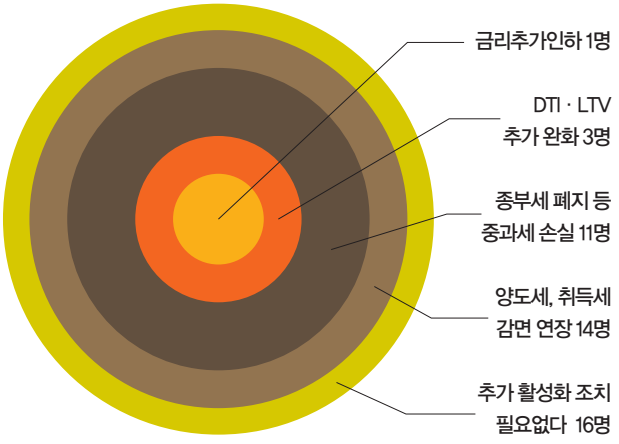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견이 다양하게 갈렸다. 18명은 '필요하다', 14명은 '필요없다', 15명은 '비과세 · 감면 축소로 상쇄 가능'이라고 답했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어떤 세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2명이 법인세, 5명잉 소득세, 4명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3명은 보유세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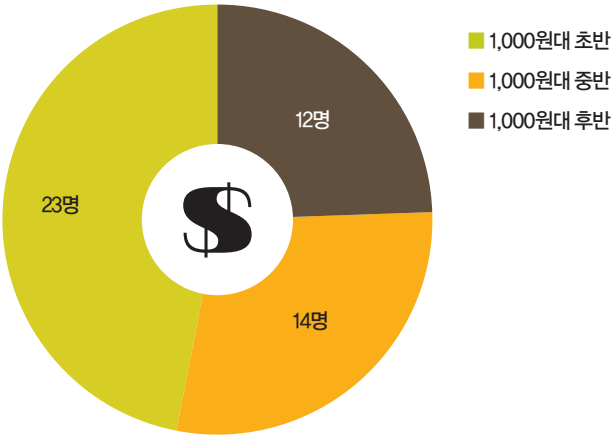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상당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14명은 '미 금리 인상에 맞춰 서서히 올려야 한다', 11명은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 얼마가 적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회원 가운데는 5%까지 올려야 한다는 회원이 있었고, 내려야 한다는 회원 중에는 1%까지 내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OLP**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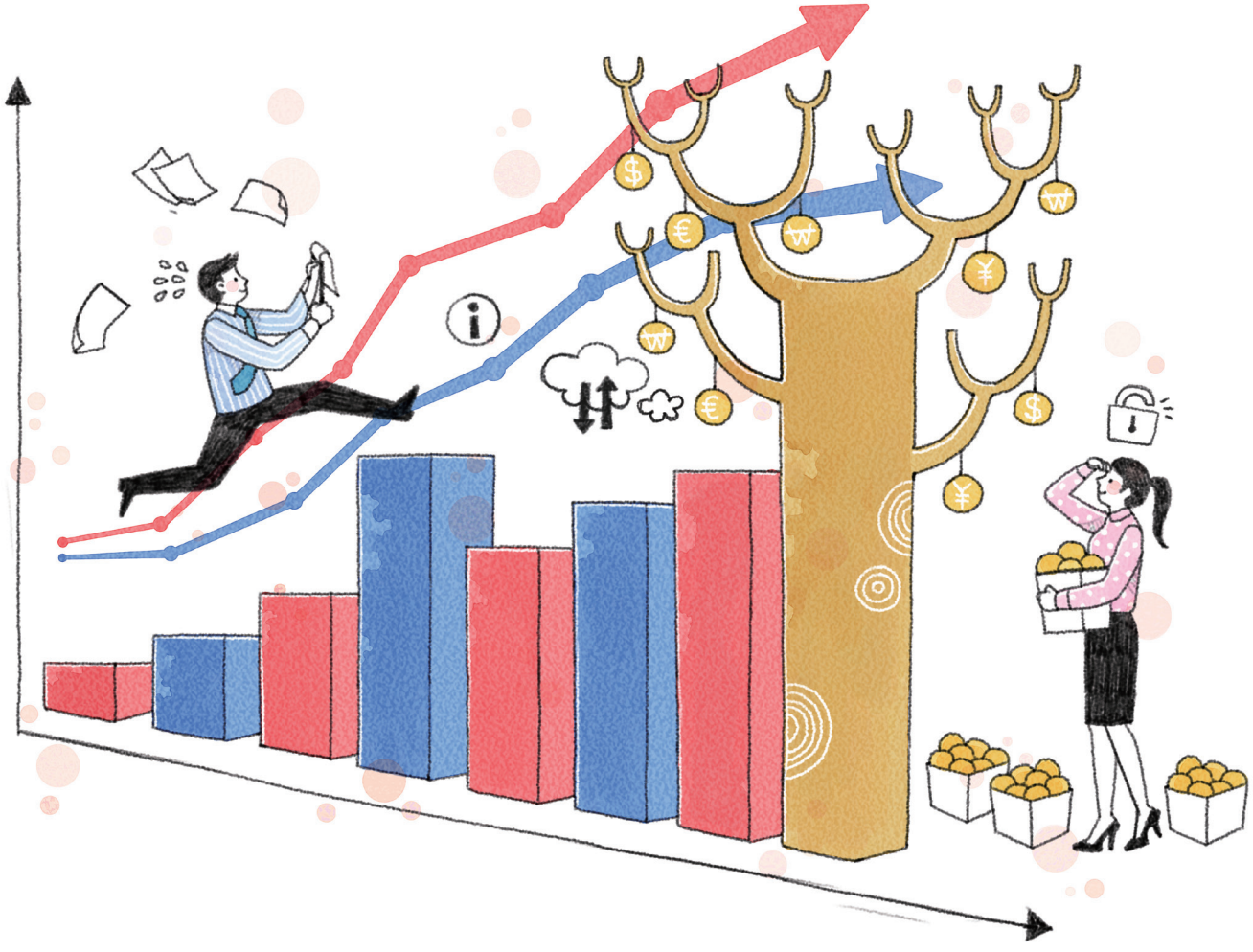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예상치는?



D의 시대? 그래도 희망과 의지를!



글_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OLP 12기)



D(디플레이션)의 시대에 대한 우려가 사방에서 나온다. 일본을 봐라 하고, 일본은 유가 아니다고도 한다. 일본이야 이미 경제 부국이니 저렇게라도 버티지, 미·일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는 어쩔거냐고도 걱정이다. 하긴 유럽도 D의 공포에 눌려 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시대에 확실히 들어선 것만은 확실하다. 전대미문의 가지 않았던 길에 우리는 들어섰다. 가령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나 충돌적 갈등도 근원은 이런데 닿아 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현금의 가치, 현금창출의 기회에 대한 재평가가 공무원연금 문제를 촉발시킨 것이다. 더구나 갑자기 실감나게 다가온 고령화 사회다. 저성장 고령 사회의 단면은 2015년 한해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D의 어두운 그림자로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6년만에 임금동결을 했다. 매출이 주춤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니 역성장 시대라는 표현도 나왔다. 대기업에서 시작된 투자위축세는 1차, 2차, 3차 협력기업들을 거쳐 무수한 사업자들에게로 빠짐없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공포를 또 언급하는 것은 너무 상투적이다. 그래도 일자리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내내 기업과 가정에서, 그래서 사회적 관심사일 것이다.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자괴감보다 세대충돌의 위기감이 더 크진다. 일자리는 비단 나, 우리세대만의 일이 아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OLC 회원들도 상당수인 편이고 보면 자식들 일자리, 즉 그들의 사회진출이 더 걱정인 상황이다. 베이비부머들의 퇴직과 노후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헝그리 정신이 있다. 살아온 세월의 힘도 있다. 한참 더 버텨낼 근원적 삶의 에너지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자식들을 보면서도 정년 60세법이 계속 반갑다 할 수나 있을까. 한국보다 앞서 정년을 늘린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확 줄여 뽑겠다고 했다. 게이단렌의 이 조사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한국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매사 자식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세대가 자식들의 고통을 냉정하게 지켜볼수 있을까. 자식들의 진로는 올해도 우리의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1년 전, 정년 60세법의 그늘에 주목하면서 '1990~1995년생 크레바스 세대들 정말 걱정된다'는 칼럼을 썼다. 2015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우려다. 일자리가 관건인데, 정년이 늘어나면서 기업은 새 인력을 뽑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 여파가 1990년대 출생자들에게 직접 밀어닥칠 것이다. 금쪽같은 내 자식들, 딱하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취업하라고? 결혼하라고? 어떻게?"라며 대들것만 같다. 1996~1998년생, 2000년생이라고 뭐가 급격히 좋아질까. 이 구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나는? 제때 다 진학시켰다는 기쁨은 말 그대로 순간이었다. 학비야 몇 년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된다고 치자, 그 다음엔? 이런 고민은 OLC의 젊은 회원쪽으로도 스멀스멀 퍼졌갈 것이다.

기업 환경도 갈수록 험난해진다고 봐야 한다. 외환위기 후 살아남은 은행들이 덩치는 다소 키워왔다지만 소위 4대천왕 사이의 경쟁은 이전의 예상을 초월한다. 저금리시대 보험사들의 고민 역시 상상 밖이라고 봐야 한다. 국내서 확실히 일등은 했지만 현대자동차는 토요타 GM 벤츠와 무한대로 싸워야 한다. 삼성은 수십년 다툰 LG와 경쟁보다 애플과의 건곤일척을 이겨내야 한다. 많은 적이 아니라 단 하나의 상대가 더 어려운 법이다. 이런 처지에도 정치권은 싸우는데 일등이다. 국회도 정당도 쟁점거리가 안되는 사안에 싸움질이다. 국민들과 따로 놀겠다는 것인지…. 다행히(?) 2015년은 큰 선거일정이 없다. 근래 드물게, 앞으로도 흔치 않게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만 없을 뿐 정치는 가열 찰 것이다. 언제나 이런 싸움에선 미리 당겨 쓰는 가불 정치판이니 내년 총선으로 미리 다투고 그 다음 대선까지 놓고 미리 어르렁거릴 것이다. 신뢰는 더 흔들린다. 다문화, 다원화된 급성민주사회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런지…. 오지랖도 넓게 걱정지대는 점점 커지기만 한다.

OLC 회원들은 아마도 우리 자신보다 자녀 걱정, 회사 걱정, 나라 걱정으로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우국의 시대에 내 걱정은 언제나 뒤로 밀려왔다. 누구든 고민은 늘어날 테지만, 이 모든 걱정이 이나마 누리는 '문화 생활'의 댓가라고 자위하며

그나마 버틸 것이다. 깊은 밤 나홀로 한잔으로 불면의 밤을 달래는 회원들도 늘어날지 모른다.

물론 더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을 키우고 사업에서 앞서간다. 하지만 선두에 선 그들인들 그 이면엔 얼마나 많은 피땀과 번민이 있었겠나. 이제 그 고충이 줄어들길 염원하기 보다 고통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함과 원숙미를 갖길 기원한다. 기업뿐이랴. 공직만 해도 예전처럼 자잘한 재미는 아예 없어질 것이다. 말 한마디 잘못이면 갑질한다는 비판이 칼날처럼 날아드는 판이다. 행여 판단이라도 하나 잘못하면 손톱밑에 가시 박는다고 사방에서 난리일 것이다. 국장은 예전의 과장만도 못하고 과장은 사무관만도 못하다고 느껴질 게다. 더 몸을 낮추는 길 뿐이다. 민주화라는 게 쥐꼬리만큼도 남김 없이 일체의 권위를 빼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IT, ICT의 도도한 흐름은 우리 OLC의 다수 회원이 몸담고 있는 언론계의 밑바탕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신문과 방송의 수단(medium)이 너무나 달라졌다. 종이가 인터넷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지는 한참이다. 떵떵거렸던 방송도 스마트폰에 밀리는 분위기다. 융복합 기술이라는 게 실상 그 소용돌이 속에 발을 디딘 당사자들에겐 그렇게 버겁고 두려운 대상이다. 올해는 또 어떤 제살깎기로, 또 어떤 과도한 경쟁으로 서로를 두렵게 만들까.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라지만 즐거운 건 그 수혜자들 뿐이다. 당사자들은 피를 말리는 게 경쟁이다. 미디어도 정보, 감시, 비판이라는 본질적 기능은 물론 좀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힘들다. 기자들이 가야할 길을 그대로인데 장비 구비도 체력 보강도 실은 알아서 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안전지대는 없다. 대학까지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OLC의 모교, 서강대의 손실, 특히 2014년 등록금 부분 적자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 회원들 모두 단단히 놀랄 것이다. 구조조정의 거대한 물결 앞에 예외지역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 발을 내딛는 한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도 도시도 사회도 그렇게 진보해 왔다. 그렇게 커온 나라다. 힘이야 든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보다 나을 것도 없으리라 각오하자.

대신 2015년, 우리는 3050클럽에 들어선다. 희망이라면 엄청난 희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말이다. 그런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뿐이다.한번쯤은 제국의 역사로 세계에서 떵떵거린 나라들이다. 우리가 7번째로 그런 클럽에 가입한다. 국제사회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받을 것이다. 나라 밖으로 나가면 대접도 달라진다. 그 주역이 우리 세대다. OLC도 그 중 한축을 형성하면서 올해 더 큰 사회적 기여를 수행하길 소망하자.

2015년 12월, OLC는 또 힐튼 그랜드 볼룸에서 흐뭇한 미소들로 한해를 돌아보며 덕담을 나눠야 한다. 부실한 부분은 아파도 더 파내자. 취약한 부분은 회원들끼리 더 조언도 받자. 미루지 말자, 덮지 말자, 피하지 말자. 연말에 다시 손잡고 웃게끔 지금부터 준비하자. **OLP**



안 놀아 준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놀아준 아빠들을 위하여...

기업이름이 담긴
책 선물 어떠세요?

자녀(개미똥꾸멍)가 있는
가정에(직원, 고객)
행복을 선물하세요.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의 능률도 UP!!



Before

After

50부 이상 주문 시
(서점유통 단가 권 18,700원)

~~18,700~~
15,000원

※ 대량주문시 가격협의

1 회사 상호로 표지를 디자인 제작 해 드립니다.
2 표지 QR코드 영상에 회사 로고를 삽입해 드립니다.
3 표 2, 3(표지 안쪽 페이지)은 회사 홍보지면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구입문의
주)성우애드컴 개미똥꾸멍 특판 사업부 | www.swadcom.co.kr | 장혜련 010. 6527. 0201 | mvpryeon@naver.com

2015년 바뀌는 노동관련 제도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망



글_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OLP 10기)



1. 2015년 바뀌는 노동관련 제도

2014년 국회는 4월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이후 여 · 야간 대립구도가 파국을 치달으면서 국회가 공전한 탓에 노사관련 쟁점법안이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환노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2015년도 바뀌는 노사관련 주요 사항은 예년에 비해 많지 않지만 다음과 같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보다 350원(7.1%) 인상된 5,580원이다. 1일 8시간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은 44,640원이다. 아파트경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된다.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거짓 채용공고를 해서는 안 되며, 채용서류 반환절차를 고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해줘야 하며, 반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을 촉구해도 사업주가 이를 3회 이상 따르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사업장 명단을 공개된다. 기업이 어린이집을 짓는 대신 지급하던 보육수당 지급 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직장건강보험료율이 5.99%에서 6.07%로 0.08%p 인상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지급되며,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사업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이 대량 해고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월 6만 원)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2.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망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5대 의제 14개 세부과제 중 3개 우선과제를 금년도 3월까지 구체적 합의하기로 했으나, 노동시장 구조개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최저임금	• 시급 5,210원	• 시간급 5,580원, 일급(8시간) 41,680원 • 월환산액은 주40시간제 1,166,220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 시급 4,689원 (시급 5,210 × 0.9)	• 시간급 5,580원, 일급(8시간) 41,680원 • 월환산액은 주40시간제 1,166,220원
거짓채용 · 구인공고 금지, 채용서류반환 등	• 신설	• 거짓 채용광고 금지, 반환절차 고지의무 *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채용서류 반환 비용은 회사 부담 원칙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	• 신설	• 여성고용기준 미달로 개선계획 제출 이후,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3회 연속 따르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
직장어린이집 대체의무 이행수단인 '보육수당' 제도 폐지	•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대신하여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 가능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중 직접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으로 의무이행 대체를 할 수 있었으나, 삭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	•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관보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6개월 이상 게재	•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이 고용부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1년 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 육아휴직(최대1년)의 미사용 일수를 한도로 이용 가능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일수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분할횟수 확대	• 최대 1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단독 또는 혼용해 사용할 경우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건강보험료율 인상	• 2014년 직장 건강보험료율 5.99% (노사 절반씩 부담)	• 2015년 건강보험료율 6.07%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 신설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은 장관 별도 고시)
비정규직 고용안정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	• 신설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단시간 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 위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지원요건, 지원대상 및 수준, 지원기간 등은 장관이 별도 정함)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운영기간 연장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초과 1인당 분기별 18만 원(월 6만 원) 지원 • 2012~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혁 방향에 대해 노사정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2월 23일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의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눈다는 양대 원칙을 선언했다. 아울러 5대 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 근로시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개 과제를 2015년 3월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 기타 구조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 구조개선 합의문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

5대 의제	14개 세부과제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대중소 상생협력, 비정규직 차별시정, 노동시장 활성화 등
② 임금 · 근로시간 등 현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대비 임금제도 개선
③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④ 사회안전망 정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취약근로자 소득 향상 등
⑤ 기타 구조개선 사항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 노동법제도 현대화 등

노사정위원회는 12월 23일 합의문의 우선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열었다. 한편 지난 12월 22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근로계약 유연화와 기간제 · 파견근로자 규제합리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가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 종합대책을 독자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12월 29일 노사정 특위에 정부안으로 발표했고, 이 날 경영계도 안을 발표했고 노동계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 vs. 경영계 우선과제(안) 비교

	정부	경영계
기간제 사용 기간	• 35세이상 최대 4년 허용 • 계약해지시 이직수당 지급 • 3개월이상근무시 퇴직급여 • 계약기간 갱신 2년간 3회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폐지 • 당사자 합의시 계약 연장
기간제 · 파견 사용제한	•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파견허용 • 인력난 심한업종 파견허용 • 생명 안전 보건분야 제한	• 파견허용업종 네거티브로 전환
사내하도급	• 가이드라인 보완 • 위험 작업 도급 제한	• 사내하도급 활용 적법성 인정
정리해고요건	• 정리해고뒤 재고용절차 구체화	• 경영상 합리화로 변경
일반해고 등	• 일반 고용해지 기준 ·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 저성과자 고용조정 및 일반해고 명문화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

우선과제로 제시된 고용노동부안을 살펴보면 모든 기간제 ·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35세 이상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된 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연장기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 · 파견근로자를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퇴직급여를 주어야 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기간제 단기계약 갱신은 2년간 최대 3회로 제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파견근로에 대한 제한을 풀고 있는데 반해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파견을 허용할 계획이다. 여객운송 선박 · 철도 · 항공 사업 중 생명과 안전 분야 핵심업무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 보건 관리자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계 입장에서 정부안을 평가한다면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특히,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대부분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보다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88.2%가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개월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

여 지급,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은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 지금보다 해당 분야 일자리가 감소할 위험성이 높다.

한국노총도 정부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확산하면서 일부 보호대책을 끼워 넣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체결된 노사정 기본합의문은 IMF이후 노사정이 사회적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금년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우선과제에 대해 노사정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가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함이지 경제주체 일방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상황에 처해있다. 노동시장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OLP**

노사정위원회는 12월 23일 합의문의 우선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열었다.
한편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근로계약 유연화와 기간제 · 파견근로자 규제합리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가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구절벽 넘을 희망의 구름다리





글_ **김광기**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본부장(OLP 3기)

한국은 인구절벽을 건너갈 구름다리 두 개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와 구조개혁이 그것이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2015년은 양띠 해다. 양은 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동물로 통한다. 착함(善), 올바름(義), 아름다움(美), 상서로움(祥) 등의 한자가 바로 양(羊)자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우리의 앞에 놓인 새해는 괴물처럼 흉하게 그려지고 있다.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이들이 시름에 잠겨있다.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2015년 경제는 총량 지표에서 겨우 지난해와 비슷한 성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와 한국 경제 모두 3.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국 · 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은 내다본다. 미국과 중국이 그런대로 세계 경제의 회복흐름을 견인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은 뒷다리를 접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딱 그 중간일 것이란 관측이지만, 갈수록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 주식시장이 넘치는 유동성 덕분에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 증시만 유독 지진아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한국 기업들의 지금 모습은 해 저문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 같다. 추격해 오는 들짐승들의 울부짖음은 점점 크게 들리는데 산을 빠져나갈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누가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겠는가.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답답함을 더한다. 말로만 경제살리기를 외칠 뿐, 뭐 하나 막힌 곳을 뚫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피크를 치고 줄어들기 시작한다. 곧 이어 2018년이면 40대 후반의 주력 소비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에 직면한다. 일본의 전례에 비추어 인구절벽에서 미끄러지면 디플레이션 골짜기로 나둥굴 위험이 커진다. 인구통계 전문 분석기관인 미 덴트연구소는 "한국이 인구절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고 코스피지수는 1000 밑



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절벽을 넘어 건너 편 땅에 무사히 도착할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우리에겐 희망의 구름다리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재개해 인적 · 물적 교류를 하게 되면 인구감소 문제는 단번에 해결된다. 더구나 북한 개발수요를 겨냥한 외국 기업과 투자 인력까지 끌어모을 수 있다. 굳이 이민정책을 쓰지 않아도 한국은 '기회의 땅'을 찾는 세계 각국 비즈니스맨들로 북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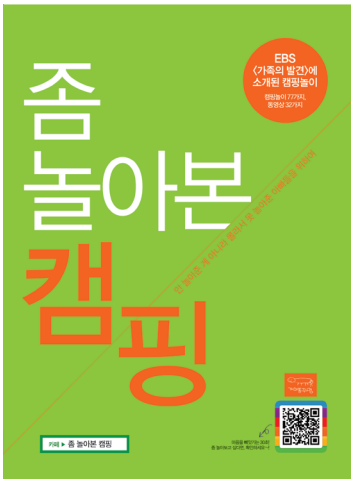
남북한 경제교류 재개는 북한을 도와주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 우리에게도 절실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5년은 그 단추를 다시 꿰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당장 5 · 24 대북 경제제재조치부터 풀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를 늘리고 외국 기업들과 함께 하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산에서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철도와 도로, 가스관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남북한 관계 개선만큼 좋은 상황 반전의 카드는 없다. 미국도 쿠바와 국교 정상화의 다음 수순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통합진보당 해산 조치 등 국내 이념 갈등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덮어버릴 통 큰 카드로 남북 관계의 개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구름다리는 역시 경제 구조개혁의 완수다. 줄어드는 생산 · 소비 인구 문제의 특효약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설사 인구가 줄어도 소득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수출 경쟁력도 다시 좋아진다. 양띠 해, 박근혜 대통령이 심기일전해 구조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의 승부수를 띄우길 기대해 본다. **OLP**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캠핑놀이 방법 II





OLC 운영이사 9기 이민성 원우가 발행한
'좀 놀아본 캠핑'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종이컵 UFO

준비물 : 종이컵, 나무젓가락

① 종이컵 아래쪽을 1/3 정도 남기고 돌아가며 여러 번 가위질을 해서 문어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② 종이컵 가운데를 뚫어 나무젓가락을 끼운 후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③ 손바닥 사이에 나무젓가락을 놓고 손을 비비다가 떼면 종이컵이 날아가요.



아빠 Tip

- 가위질을 많이 해서 다리를 많이 만들어야 종이컵이 잘 날아요.
- 손을 비비다 바깥쪽으로 나무젓가락을 놓아야 밖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 같은 곳에 서서 아이와 함께 누가 멀리 날리는지 대결을 해 보세요.

● 나는야, 화로 목탄 화가

준비물 : 화로에서 타고 남은 숯, 돌멩이

① 화로에서 타고 남은 숯 중에 크레파스 크기의 목탄을 고르세요.

② 아이와 함께 캠핑장 주변에서 동물 모양이나 사람 모양의 넓고 편편한 돌멩이를 찾습니다.

③ 돌멩이 모양을 살려 장작목탄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

④ 돌멩이 모양에 맞게 눈, 코, 입을 그리면 세상에 하나뿐인 조형물이 됩니다.

⑤ 완성된 작품으로 텐트 앞 전시회를 가져 보세요.



OLP SPECIAL



2014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OLP 12기)

제13회 OLC 골프대회 **김홍익** 신한은행 지점장(OLC 사무총장)

서강대 OLC산악회와 떠난 백두대간협곡열차
호미숙 여행작가 / 위키트리 기자

OLC산악회와 함께한 서울여행
호미숙 여행작가 / 위키트리 기자

OLC대상 수상자 인터뷰 OLC 편집위원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 인터뷰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OLP 3기)

OLP 18기 졸업여행 **신혜선** 머니투데이 문화부장(OLP 18기)

박필준 회장 인터뷰 **박성호** 아시아경제신문 금융부장(OLP 18기)

2014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글_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OLP 12기)

밀레니엄 힐튼 그랜드볼룸에서 행사 전에 함께 포즈를 취한 회장단과 OLP교수진.
오른쪽부터 홍성열 명예회장, 박정수 교수, 이한식 교수, 이인실 교수, 장재진 회장, 구자관 수석부회장, 이민성 운영이사, 이홍재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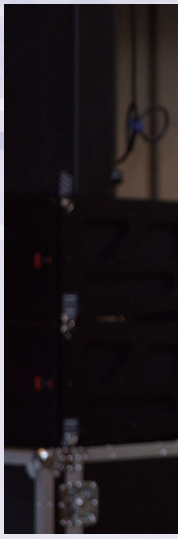
갈수록 규모와 품격을 더해가는 서강대학교 오피니언리더스 클럽(OLC)이 2014년에도 감동의 한해를 돌아보는 송년의 밤으로 원우들간의 우의를 다졌다. 2014년 12월 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행사에는 장재진 회장과 홍성열 명예회장, 이한식 경제대학원장을 비롯해 각계에서 중진으로 활동중인 300여 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친교의 장이 거행됐다. 전자 방명록에서 서명으로 시작해 뒷풀이 경품 추첨까지 전자식으로 진행된 첨단 IT형 사교장이기도 했다.

올드 팝과 가요를 넘나드는 카우보이 분위기의 초대 가수와 아마추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OLC 밴드도 한껏 흥을 북돋웠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원우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청양의 해 2015년에도 더욱 힘찬 전진을 다짐했다. 이날 '2014 OLC 대상'에는 이덕수 타임즈코어 회장(경영분야), 강기수 한화 상무(홍보분야), 김광기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이코노미스트 · 포브스 본부장(언론분야)가 선정돼 상패와 큼직한 부상을 받았다. OLP



전자 방명록에 서명하는 구자관 OLC 수석부회장.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1 송규일 원우 등 OLP 밴드 '더 늦기 전에'가 열연하고 있다. 현역 대학생인 아들 세대들 못지않은 열정이 넘친다.

2 양복에 카우보이 모자가 돋보이는 초청가수 정순교씨의 열창. 그는 한때 나훈아와 남진을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인기를 누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3 2014년 OLC를 빛낸 얼굴들. 오른쪽부터 어진 회장을 대신해 공로패를 수상한 노경래 간사장(12기), 김성준 회장을 대신해 수상한 이성원 간사장(6기), 장재진 회장, 김재중 부회장, 구자희 부회장

4 2014년 OLC를 더 크게 빛낸 얼굴들. 영예의 2014 OLC 대상자들. 오른쪽부터 김광기 원우, 이덕수 부회장, 장재진 회장, 강기수 원우.



5



6



7



8

5 명사회자 탄생! 송년의 밤을 부드러우면서도 격조 높은 자리로 만들어준 김홍익 OLC 사무총장.

6 행사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한 회장단. 오른쪽부터 김홍익 사무총장, 이세정 언론편집분과위원장, 장재진 회장, 구자관 수석부회장, 유병인 사무차장

7 변하는 세상에서 앞서가는 OLC. 가벼운 터치만으로 가장 공정한 추첨이 이루어졌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8 나란히 선 전현직 회장단. 오른쪽부터 남기섭 원우, 이한식 교수, 홍성열 명예회장, 장재진 회장, 이광준 원우, 이홍재 감사





제13회 OLC 골프대회, 고원에서 즐긴 자연주의 힐링 골프!



글 _ **김홍익** 신한은행 지점장(OLC 사무총장)



골프는 왜 좋은 것일까? 누군가 이야기했다. GOLF is Game Of Love and Fun. 사랑과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꼭두새벽에 일어나 어디든지 달려간다. 그리고 골프를 하면 자연스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동반자와 같은 차로 이동하기라도 한다면 보통 8시간 이상은 같이 움직인다. 이동하는 시간은 물론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목욕도 같이한다. 속속들이 알게 되니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게 되면 다음부터 같이 하지 않는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같이 하게 된다. 또 재미있다. 게임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18홀 내내 같은 방식으로 즐길 수도 있고 홀마다 다른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재미있는 사건도 많이 생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눈다. 혼자서 공만 때리고 스코어만 챙기거나 장황하게 자신의 골프역정을 과장하고 동반자를 배려하지 않는 재미없는 사람과는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 OLC 골프대회는 어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골프를 하는 대회가 OLC 골프대회가 아닐까? 모든 OLC 모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사실이지만 항상 즐겁고 활기차고 왁자지껄하다. 그리고 반가운 만남이 있다. 2014년 10월 31일의 만남도 새벽 공기를 가르는 활기찬 인사와 덕담과 안부로 시작되었다. 2014년 골프대회는 그 동안 주로 대회가 진행되었던, 경기도 지역을 벗어나 강원도 홍천에 자리잡은 소노펠리체CC에서 열렸다. 홍천에서 골프대회가 열린다고 하자 거리가 멀어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진행 관계자들은 새벽 시간에 몇 차례 골프장을 방문해 보고 강남 기준으로 시원하게 잘 닦인 경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소노펠리체 골프장은 전국적 체인망을 갖춘 대명콘도 그룹이 야심차게 선보인 럭셔리 리조트를 지향하며 건설된 골프장으로 골프 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곳이었다. 실제로 직접 가서 보니 골프 코스는 물론 클럽 하우스며 주변에 건설 중인 골프 빌리지의 모습이 꽤나 인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특히 클럽하우스의 설계를 맡았던 세계적인 건축가 다비드 피에르 질리콩의 명성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지상 최고의 보석 인 다이아몬드와 비상하는 새의 날개를 모티프로 지어진 클럽 하우스는 외관부터 차별화한 디자인으로 보는 이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골프 코스는 힐링코스와 에코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라운딩하는 내내 자연친화적인 분위기 속에 어우러져 자연스레 힐링이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대회 장소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강원도로 바뀌었지만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이번 골프대회는 장소도 바뀌었지만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화합하는 대회'를 지향했다. 매번 OLC 골프대회가 그렇지만 이번 대회에도 많은 원우들이 풍성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골프대회의 최고 인기(?)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포토월! 이번 골프대회를 메인 스폰서 해주신 회장님과 수석부회장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의 로고와 우리 OLC 엘블럼이 선명하게 새겨진 포토월은 참가한 원우들의 멋진 기념사진 배경으로 손색이 없었다. 늦가을 새벽 공기를 가르고 달려 온 참가 원우들은 깊은(?) 산속 고지에 지어진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의 경관에 감탄하며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원우들은 삼삼오오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안부 인사와 덕담, 그리고 굿샷의 격려 인사를 나누며 더욱 환한 표정으로 하나가 되어 갔다.

이번 골프대회도 여느 OLC 골프대회처럼 대회 내내 웃음과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홀인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OLC 골프대회의 특성상 기록보다는 화합이 우선이라는 전통이 올해도 여전했다. 이번 골프대회의 특징 하나는 기존 챔피언들의 불참으로 새로운 챔피언이 등극(?)했다는 점이 아닐까? 우승 트로피는 13기의 최백준 원우가 차지했다. 13기의 붙박이(?) 간사장으로 동기들의 단합을 책임져온 최백준 원우는 오랜만에 참석했음에도 우승을 차지해 그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냐고 주변 원우들에게 닥달아닌 닥달을 당했다는 후문이다. 메달리스트는 예상이 적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OLC 사무부총장으로 골프대회 진행에 여념이 없었을 3기 유병인 원우가 새로운 코스였음에도 74타라는 기록으로 메달리스트



를 차지했다. 매번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유병인 원우의 골프는 호쾌함과 섬세함이 어우러진 멋진 실력이라는 주변의 평이다. 준우승은 8기의 이정재 원우에게 돌아갔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산정된 스코어로 보면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차이가 0.2타로 박빙의 승부였음을 알 수 있다. 롱기스트는 전혀 롱기스트라고 보여지지 않는 착한(?) 체격의 소유자인 10기의 박동석 원우에게 돌아갔다. 225미터의 기록으로 상남자의 자릴 차진한 박동석 원우는 과거 히말라야를 등반했던 알피니스트로 골프에서 하체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했다. 니어리스트는 니어라고 하기에는 좀 멀지만 3.5M를 기록한 11기의 강경호원우가 차지했고, 다버디상은 2개를 기록한 원우들 중에 중복시상 배제로 골프대회 원년부터 실력자(?) 인정받는 2기의 김격수 원우에게 돌아갔다. 시상자들에게는 멋진 트로피와 부상품이 주어졌다.

매번 OLC 골프대회의 가장 큰 아쉬움은 여성 원우들의 참석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여성 원우들에 대한 특별(?) 시상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회에 신설된 엄청난 상(?)은 14기의 여성원우인 이명희 원우가 차지했다. 앞으로 여성 원우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상의 개수도 늘리고 부상품도 더욱 풍부하게 준비하라는 회장단의 엄명(?) 있었다는 후문이다. OLC 골프대회는 기록보다는 참여에 의의가 있는 대회이다. 멋진 골프장에서 화창한 마지막 가을을 만끽한 자리여서 좋았고 오랜만에 마음 통하고 의기투합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자리여서 좋았다.













골프는 왜 좋은 것일까?
누군가 이야기했다.
GOLF is Game Of Love and Fun.
사랑과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꼭두새벽에 일어나
어디든지 달려간다. 그리고 골프를 하면
자연스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번 제13회 골프대회도 많은 원우님들의 관심과 격려와 지원으로 치뤄졌다. 장재진 회장이 골프장 예약부터 진행에 큰 관심과 세세한 배려를 보여주었고, 수석부회장인 구자관 회장의 통 큰 화답이 있었다. 매번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OLC 회장단의 아낌없는 협찬과 세심한 관심에 감사함을 갖게 된다. 홍성열 명예회장을 비롯한 명예회장님들과 각 기수 회장님들의 금전적 협찬과 시상품 협찬이 이번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어느 모임에서도 볼 수 없는 따뜻함과 반가움과 배려심이 물씬 풍기는 OLC의 전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제13회 OLC 골프대회는 아쉬움 속에서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OLP**

서강대 OLC산악회와 떠난 영주부석사, 백두대간협곡열차, 한반도지형을 빼닮은 선암마을

글 _ **호미숙**(여행작가 / 위키트리 기자)



1

2014. 4. 26 토요일 OLC산악회회원 38명과 서울을 출발해 첫 여행지인 경북 영주 부석사의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보고 경북 봉화로 이동해서 분천에서 철암까지 향하는 낙동강 줄기 따라 느린 여행의 숲 바람 속을 뚫는 협곡열차여행을 마치고 강원도 영월의 선암마을 한반도지형까지 둘러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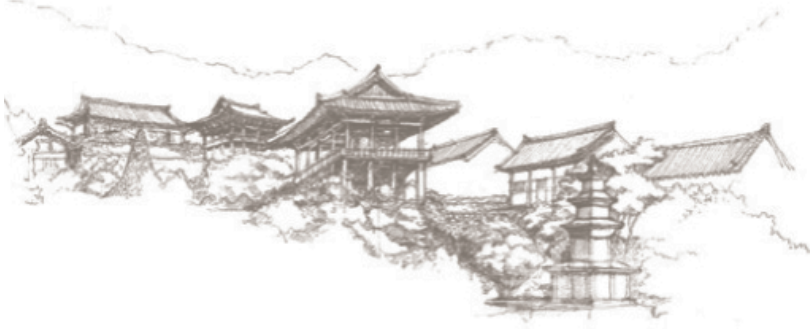
그동안 홀로 자전거 여행으로 전국의 여러 곳을 다녔지만 이번 OLC산악회 인연으로 인해 자전거로는 쉽게 갈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OLC산악회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1 OLC 산악회 2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서서 3, 4 부석사 전경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서서

첫 여행지로 영주 부석사로 향하는 길에 연둣빛 새잎이 등처럼 밝히고 색색의 연등이 오가는 이들에게 편안함으로 맞이해줍니다. 하얀 탱자 꽃이 길옆에서 반기고 돌탑에서 사람들 진정 어린 기도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까지 오르는 108개의 계단을 오르며 숨 가빴지만 발길은 산뜻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석탑과 천왕문과 안양루 그리고 무량수전을 둘러보며 지난 세월호 침몰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 애도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수선해도 천년을 지켜온 부석사는 그대로 모습으로 소백산을 굽어보며 세상을 아우르는 모습에 인간사 속세의 걱정과 번뇌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4년 전 팸투어로 다녀왔던 부석사, 특별했던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도 다시 확인하고 가을철 해넘이 때 보았던 부석사와 4월의 싱그러운 연둣빛으로 펼쳐진 부석사에서 또 다른 감흥에 젖어봅니다. 특히 부석사의 배흘림기둥은 언제 봐도 새롭고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부석사

부석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본찰로 초조인 의상 이래 그 전법 제자들에 의해 지켜져 온 중요한 사찰로 의상은 676년 부석사에 자리 잡은 뒤 입적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보 제17호인 부석사 무량수전앞석등과 국보 제45호인 부석사소조여래좌상, 국보 제46호인 부석사조사당벽화, 보물 제249호인 부석사삼층석탑, 보물 제255호인 부석사당간지주, 보물 제735호인 부석사고려각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7호인 부석사원융국사비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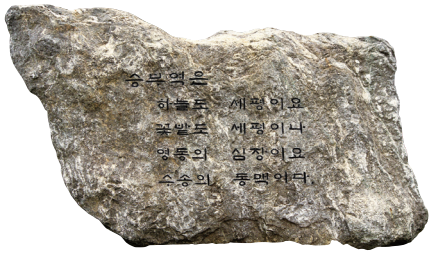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 '낙동강 줄기 협곡 따라 기차여행'

평소 TV에서만 백두대간 협곡열차 여행을 보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여행에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을 넘어선 나이, 여행은 언제나 설렘으로 아이들처럼 신이 납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 타고 가면서 아름다운 역무원 아가씨의 상세하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철컹철컹 느린 기차여행을 떠납니다.

푸름 속으로 싱그러움을 가슴에 품으며 동영상 담으랴, 사진 담으랴 정말 분주하게 양쪽으로 오가면서 풍경을 담아 봅니다. 26개의 어두운 터널도 지나고 발아래 시원하게 흐르는 낙동강 줄기, 색색의 연두색과 초록색이 펼쳐지는 산수화, 계곡으로 흐르며 맑고 청아하게 멜로디를 만들어 냅니다.

첫 출발지인 분천역은 1956년 1월 1일 영암선(지금의 영동선)철도를 개통과 함께 시작한 역으로 산간오지로 철도가 개통되고 기차역이 생기므로 이 지역의 혁명이라고 할 정도였다가 쇠퇴한 곳이었지만 현재는 2013년 3. 17일부터 등장한 V-train의 협곡 열차 운행으로 전국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난 특별한 명소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가장 작은 간이역인 양원역에서 정차해서 10분간 휴식으로 잠시 먹거리도 즐기고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승부역에서는 철도원이 썼다는 시를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승부역은
하늘도 세평이요.
꽃밭도 세평이나
영동의 심장이요.
수송의 동백이다.



V-train 협곡열차

V는 'valley(협곡)'의 약자로 협곡의 모양을 뜻하는 의미이며 기차 외에는 갈 수 없는 곳으로 좁디좁은 협곡을 가로질러 아래로는 절벽을, 위로는 바위산을 스쳐가며 감상할 수 있는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는 치유와 힐링의 여행 코스입니다. 경북 봉화 분천역 – 양원역(정차) – 승부역(정차) – 석포역. 동점역(통과) – 강원도 철암역 종착역(경북과 강원을 잇는 기차로 모든 객실에는 화장실이 없으며 에어컨 설비도 없습니다. 동절기에는 목탄 난로 사용하며 개방형 열차입니다.

5 백두대간협곡열차 **6** 낙동강 줄기따라 달리는 V-train









7 한반도 지형을 닮은 선암마을 **8** 선암마을 전경

강원도 영월 '한반도 지형을 닮은 선암마을'

한반도 지형을 닮은 곳이 전국 여러 곳에 있지만 영월의 선암마을이 가장 많이 닮은 곳이라기에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선암마을을 찾았습니다. 선암마을 한반도지형을 보기 위해서 오간재 전망대로 가는 길은 신비하게 생긴 바위들을 자주 만납니다. 변산반도 채석강에서 본 듯한 그런 모습으로 책을 쌓아 놓은 듯하고 마치 읽다가 구겨 놓은 책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간재 전망대에서 남산재 쪽을 바라보면, 한반도를 빼닮은 절벽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독도를 연상케 하는 섬도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 지도를 옮겨 놓은 듯합니다. 절벽지역은 동쪽으로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연상시키는 산맥이 길게 이어져 있고 서쪽에는 서해처럼 넓은 모래사장도 있으며, 동쪽으로는 울릉도와 독도를 닮은 듯 작은 바위도 있습니다. 오간재는 이 절벽지역을 처음 발견하고 외부에 알린 이종만의 이름을 따서 종만봉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선암마을 앞에는 넓은 자갈밭에 수박돌과 잔돌들이 깔려 있고 강 건너편은 석회암의 바위절벽에 돌단풍이 군락을 이뤄 가을에 절경을 이룬다고 합니다. 한반도지형 삼면으로 흐르는 물줄기에 뗏목을 즐기고 레프팅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간재에서 한반도지형을 둘로 보고 되돌아오는 길에 갈 때 보지 못한 신기할 정도로 서로 다른 종의 나무들이 연리근이나 연리목처럼 딱 붙어 서로에게 기대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반도지형(선암마을)

강원도 영월군 서면 옹정리에 위치한 강변마을로 서강(西江)변에 아담하게 옹기종기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이 선암마을입니다.

마을 앞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땅, 한반도를 꼭 빼닮은 절벽지역인 한반도지형이 있어 신비할 정도로 똑 닮아 명소가 되었습니다. 평창강이 주천강과 합쳐지기 전에 크게 휘돌아치면서 동고서저 경사까지 더해 한반도를 닮은 특이한 구조의 절벽지역을 만들어 냅니다. **OLP**

OLC산악회와 함께한 서울여행
광화문광장, 경복궁, 북악성곽길, 광장시장

글 _ **호미숙**(여행작가 / 위키트리 기자)







고종 즉위 40년 창경기념비각 – 광화문광장(청계천물길) – 이순신장군동상 – 혼천의 – 세종대왕동상 – 광화문 – 경복궁 (근정전 – 동궁일원 – 수정전과 궐내각사 – 경회루) : 김유원해설사 동행 – 고궁박물관(뜨락 점심식사) – 북악성곽길(창의문(북소문) – 숙정문 – 와룡공원) – 광장시장

40명이 가까이 되는 OLC산악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이번 여행은 산악회 회원들이 서로 돈독해지고 가족들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서울여행에 있어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중심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울 가볼만한 곳이지만 정작 제대로 설명해주기가 힘듭니다. 이 기회를 빌려 역사적인 배경과 다양한 이야기가 곁들인 문화여행을 해보니 제가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거리에 있으며 600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옛 모습의 육조거리를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주었습니다. 광장에 서면 경복궁과 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종로사거리와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길이가 557m, 너비는 34m로 꾸며졌는데요. '육조거리 광장', '한국의 대표 광장', '도시문화 광장', '도심 속의 광장', '청계천 연결부'로 나뉘었습니다.

청계천 물길

청계천은 현재 북악성곽길 입구인 북소문 인근이 발원지로 인왕산 동쪽 자락에서 흘러든 백운동천과 북악산 동쪽 삼청공원에서 중학천이 만나 흘러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간 곳입니다. 물길이 전에는 언덕이 있어서 물길이 꺾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동상

'도심 속의 광장'으로 세종로의 상징이자 중심지로 이순신 동상 앞에는 연못과 바닥분수가 있어 분수가 솟구치면 명량해전을 떠올리듯 물속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야경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곤 하지요. 400년 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으로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겨 세웠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법을 해외에서도 이용해서 해군의 전술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순신 동상은 공모전을 통해 김영원 교수님이 제작했습니다.

육조거리 재현

600년 전의 광화문광장 모습을 재현해 놓은 육조거리 모형도입니다. 4.19, 월드컵응원, 촛불시위가 일어난 곳으로 현재는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경복궁을 보려면 광장부터 봐야 한다고 하네요.

세종대왕 동상과 한글

혜례본의 서문에는 한글 창제의 육하원칙이 있으며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IT시대에 뛰어난 글자입니다. 문자보내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대한민국의 한글이 우수성을 갖고, 한글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아시죠? 한글의 모음을 축약하면 천지인이고 자음 17자는 아음과, 설음, 순음, 치음, 훈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치상이 있던 곳

현재 해치(해태)는 광화문 양옆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해치로 쓰고 한글로 읽을 때는 해태라고 부르는 상상의 동물로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 시비, 곡직, 선악을 밝혀내어 뿔이 있는 동물입니다. 감사원 법복에도 해치가 수놓아질 정도로 상서스러운 동물입니다. 화마를 쫓아내는 기능으로 해치를 세워 놓곤 했답니다.

월대

1395년 태조 4년에 건립한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습니다. 이후에 경복궁 대신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하여 중심 궁궐로 사용했습니다. 고종이 즉위한 후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경복궁을 중건했고, 동시에 월대를 넓고 길게 조성하여 경복궁의 권위와 품격을 높였습니다. 경복궁 복원 사업으로 원래 위치에 다시 세우면서 월대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광화문(光化門–경복궁 정문)에 대하여

서울에는 궁궐 5개가 있으며 조선 왕건 창건과 함께 경복궁이 건립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불에 탄 뒤 고종 때 중건해서 147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돌로 된 부분들은 5대 궁궐 중에 가장 오래 되었지만 나무로 된 곳은 고종 때의 건물로 역사가 다릅니다.

명패는 무관인 임태영의 글씨로 중건 당시 최초 모습으로 복원했고, 5대 궁궐의 정문은 모두 화자 돌림으로 경복궁(光化門), 창덕궁(돈화문), 창경궁(홍화문), 덕수궁(인화문), 경희궁(흥화문)입니다.



정도전이 경복궁을 설계하면서 사서오경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짓게 되었고 "임금님의 말씀이 이 문을 통해 백성에게 전해지고 백성들의 바람이 이문을 통해 전해지길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해치 해태상은 선악과 시비를 가른다는 상상의 동물로 문 앞에 세워졌고, 난관과 축대를 만들어 복원했으며 물의 배수를 위해서 입을 벌린 용 모양 6개의 누조를 설치했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여장에는 동서남북으로 8괘가 그려져 있고 3개의 아치에는 상상의 동물인 기린이 그려져 있어 산 풀을 밟지 않으며 산 짐승을 먹지 않는 어진 동물로 마음이 어진 사람의 출입하라는 뜻으로 그려졌으며 주작이 그려져 있는 것은 남쪽을 지키는 사방수호신으로 왕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이고 천년을 산다는 거북이는 길점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곽과 축대를 들여쌓기로 해서 지진강도 7 이상을 견딜 수 있으며 고구려 때부터 이용했던 축조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은 육합 쌓기를 해서 공격 시 구멍은 뚫리지만 성이 무너지지 않고(고려시대 축조법) 일본은 견치식 마름모꼴로 쌓기 때문에 하나 뚫리면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합니다.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북으로는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넓은 육조거리(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져, 왕도인 한양(서울) 도시 계획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 중건되었습니다.

궁궐에는 왕과 관리들의 정무 시설, 왕족들의 생활공간, 휴식을 위한 후원 공간이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하여 근정전 등 일부 중심 건물만 남았고,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 자체를 가려버렸습니다. 1990년부터 복원 사업으로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 일원을 복원하였으며, 왕과 왕비의 침전, 동궁, 건청궁, 태원전 등을 복원했습니다.

광화문으로 들어서자 광화문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사람들 김유원해설사님이 상세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서강대학원 산악회 회원들 외에도 지나던 사람들이 함께 진지하게 기록과 사진을 담으며 따랐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에서 보이는 북악산 능선

바닥에 깔린 박석들이 질서 없이 깔려 있는 듯 하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며 뜰이지만 북쪽이 남쪽보다 1.6미터 높아 홍수 때 물길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악자락과 인왕자락 끝 사이에 자리해서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보인다. 근정전 처마와 산자락의 능선을 따라 곡선이

고 백두대간 정기가 그대로 내려와 바위와 물이 있는 곳에서 멈추고 바람이 있으면 정기가 흩어진다고 해서 좌청룡 우백호로 막아준다.

근정전(국보 제223호)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영역에서는 조하를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국가의 중대한 의식이 거행되었고 처마가 곡선으로 만들어진 까닭은 배경의 산 능선을 따라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왕이 신하들의 조회의식을 받거나 공식적인 대례 또는 사신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중층으로 된 근정전 건물은 2단의 높은 월대(月臺)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중요행사를 치를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박석을 우툴두툴하게 만든 이유는 한여름에 조회를 할 때 여름의 태양빛이 쬐면 반사되어 얼굴에 비쳐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을 수 있어서 복사열을 분산시키고 천천히 걸으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처마의 추녀가 올라가서 처마는 곡선으로 동그란 것이 서까래이고 겹처마로 이뤄졌다. 부채꼴로 모양이 벌어져 날개를 펼친 듯 아름답습니다. 살미는 소 혓바닥처럼 나와 앙서와 수서로 이루어졌다. 처마 밑에 철망(부시)을 만들어 뱀이나 새들이 살게 되면 살생이 이뤄질 수 있어 처음 지을 때부터 설치한다고 합니다.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경복궁 궁궐 위치를 놓고 설전을 펼친 후 정도전의 주장대로 남쪽으로 향했고 무학대사는 200년 못 가서 난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근정전 내부

어좌 뒤에는 해와 달(음양의 조화) 오봉과 병풍이 있고 닷집(집속의 집) 용상과 부처님 위에는 지붕이 또 있습니다. 2층이 아닌 통층 구조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림이 천정에 그려져 있고, 오봉은 백두산, 모향산, 금강산, 지리산, 중앙에 북악산(사방 전국을 내다보면 정치하라는 뜻), 동서 행각에 있는 융문루와 융무루는 정전 영역의 밖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왕과 왕세자, 궐내각사의 신료들이 보던 책을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이 융문루와 융무루는 학문을 상징하는 문(文)으로써 다스림을 이루고 힘을 상징하는 무(武)로써 난을 안정시킨다는 뜻의 이름으로, 근정전이나 근정문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사정전 – 편전(보물 제1759호)

신하들과 정치를 논의하는 곳, 생각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현판

왕이 신하들과 일상으로 정사를 논의하던 편전으로 왕이 평소에 정사를 보고 문신들과 함께 경전을 강론하는 곳입니다. 또 종친, 대신들과 함께 주연을 즐기고, 왕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과거 시험을 치른 곳입니다. 경복궁의 편전 영역은 사정전(思政殿)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근정전 영역으로 통하는 사정문과 침전영역으로 통하는 향오문 사이에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이 남향하고 있으며, 그 주변을 행각이 감싸고 있습니다.

만춘전

위에서 2/3지점에서 기둥이 불룩해진 배흘림기둥으로 지어졌습니다. 만춘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나라 목조건축 기법이 총망라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수정전

수정전의 북쪽으로는 경회루가 자리 잡았습니다. 수정전이 있는 권역은 세종 연간에는 학문을 연구하며, 왕에게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던 기관으로 한글을 창제하는 등 문치의 본산이었던 집현전이 있던 궐내각사의 지역에 해당하며, 동쪽으로 사정전의 왕의 영역과 신하들의 영역이 만나는 접점인 이곳에 궐내의 관청인 각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회루(국보 제224호)

경회루는 침전 영역 서쪽에 위치한 연못 안에 조성된 누각으로 외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과 신하 사이에 벌어지는 연회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경복궁 창건 당시는 작은 누각이었던 것을 태종 12년(1412)에 크게 연못을 파고 지금과 같은 규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기를 받는 곳인 종묘나 궁궐에 연못을 설치하고 섬을 둥글게 만들어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섬의 기능으로 연못은 흐르지 않아 물이 썩을 수 있지만 섬이 있으므로 물이 돌아 정화작용의 과학적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물고기와 독수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목조건물의 방화의 상징

성입니다.

세월의 풍상을 막기 위해 용머리 세우고, 잡상인 손오공 행렬(지붕에 있는 잡상 중 가장 많은 11)을 놓은 이유는 세월의 환란을 꾀로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2층 구조 1층의 사각의 뿔때기 기둥 24개 속에 24개 둥근 기둥 48절기를 뜻하고, 2층에서는 시회 베풀고 과거 합격자 격려하고 정무를 논하는 곳으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있는 경회루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야경을 일부러 담으러 와야겠습니다. 단종이 옥쇄를 강제로 세조에게 강제로 빼앗긴 곳이기도 합니다.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고궁박물관에 있는 '뜨락'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북악성곽길을 거닐기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북악성곽길

창의문 – 창의문 안내소 – 백악 돌고래 쉼터 – 백악 쉼터 – 백악마루 – 1 · 21 사태 소나무 – 청운대 – 암문 – 백악곡성 – 백악 촛대바위 – 숙정문 – 말바위 안내소 – 우수조망명소 – 와룡공원(성균관대후문 – 정문까지) – 암문 – 서울과학고등학교 – 경신고등학교 – 혜성교회 –두산빌라 – 구 서울시장공관 – 혜화문

청계천 발원지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북악산 정상 쪽으로 약 150미터 지점에 항상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약수터가 있으므로 청계천 발원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창의문

사적제149호로 인왕산과 백악이 만나는 지점의 문인데요. 사소문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 문루가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다시 세웠다고 해요. 현재는 자하문으로 많이 불리는데 개경의 승경지였던 자하동과 비슷해서 붙은 별칭이라고 합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울 때 자전거로 한 번 가봐야겠습니다. 성곽길 따라 계단이 만들어졌는데 백악마루까지 가파른 계단의 연속입니다. 가을을 물씬 풍기는 붉은 담쟁이와 씀바귀 흘씨를 만납니다. 중간 중간 풍경이 좋고 경치가 좋아 서울 전경을 담으려 했지만 사진 촬영 금지구역이 많았습니다.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계절별로 오르면 색다른 풍경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마루로 향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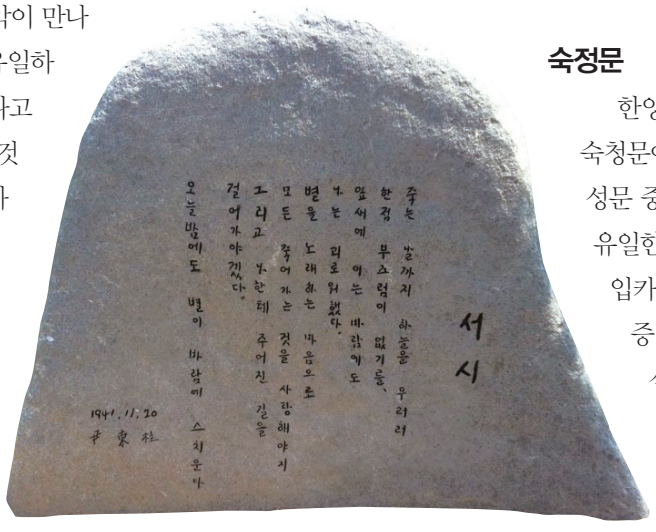
이 길은 가파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무릎에 손을 얹기도 하며 난간을 잡고 카메라 셔터 간신히 누르며 올랐습니다. 백악산 꼭대기 커다란 바위에 오른 학생들 무섭다면서 즐거워합니다.

백악산 정상에서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니 1.21사태 소나무를 만납니다. 간첩 김신조 등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목적으로 침투했다가 경찰과 교전 후 북악산 및 인왕산 지역으로 도주했는데 당시 군경과 치열한 교전 중 이 소나무에 15발의 총탄 흔적이 남았고 그 후 이 소나무를 1.21사태 소나무로 불린답니다.

청운대 해발 293미터

오래된 세월에도 끄떡 없이 철벽처럼 서 있는 성곽.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고 수많은 외세 침략에도 잘 지켜준 방패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굽은 소나무 아래 좁은 길을 거닐며 소나무가 마치 문을 만들어 놓은 듯했습니다.

가을은 벚나무에 색색의 열대어를 걸어두는 계절입니다. 도성길 걷는 재미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서울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선조들의 숨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숙정문

한양도성의 북대문으로 처음에는 숙청문이었으나 이름이 바뀌고 현존 도성문 중 좌우 양쪽으로 성벽이 연결된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는 목에 걸린 출입카드를 보고 보내주었지요. 신분증 없이 올랐다면 이곳 안내소에서 삼청각으로 갈 수도 있고 김신조 루트로 북악스카이웨이의 팔각정과 하늘마루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와룡공원에 도착해서 성대 후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행들은 자리를 옮겨 광장시장으로 먹거리 순례를 나섰습니다. 여행에 먹거리는 즐거움 중의 백미라고 할까요? 사실 자전거 타고 홀로 다니면서는 그 지역의 자랑이라고 할 만한 맛집이나 먹거리를 먹어 볼 수 없었지요. 2인분 이상만 되는 메뉴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광장시장

광화문에서 출발한 OLC산악회원(서강대대학원 산악회)들과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루까지 해설이 있는 역사문화여행을 마치고 북악성곽길을 느긋하게 걸어 내려와 서울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서울의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을 만큼 국내외를 물론 대한민국 서울의 명소로 거듭났는데요. 발 디딤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시장통은 북새통으로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리고 어느 집을 찾아갈까 고민할 시간 없이 빈자리를 찾아 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지요.

우리가 자리한 곳은 '맛있는 광장시장'이란 앞치마를 두른 인상 좋고 화사하게 반겨주던 어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수북이 지져낸 녹두전, 순대, 머리고기를 팔던 가게로 앉을 자리는 없지만 비좁은 곳에 엉덩이 걸칠만한 긴 나무 의자면 어떠리, 중학생 소녀까지 동반한 오늘 서울여행에 광장시장의 먹거리 순례는 맛있다는 감탄사와 함께 큼직해서 입에 다 못 넣겠다 등 소박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일행들은 막걸리를 들이키며 시장통의 맛의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호미와 중학생 소녀는 술을 못하니 사이다로 대신했답니다.

인심 좋은 주인아주머니는 마약김밥이나 떡볶이는 다른 곳에서 사와도 된다며 일반 식당에서 볼 수 없는 넉넉한 인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 식당에서 메뉴 말고 다른 음식을 절대 금지인데 말입니다.

산행을 마친 일행들의 한 시간여 동안 떠들고 먹고 맛있는 수다에 포만감에도 즐거운 발걸음은 몇 장의 푸른 지폐와 맞바꾸면서 행복한 웃음이 넘칩니다. 9명이 먹고 남겼는데도 겨우 4만 원 정도였습니다.

산행을 이끄는 대장님께서 광장시장의 이 정도 먹거리 순례론 부족하다면서 우리 일행을 길 건너 어떤 골목으로 안내합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배가 부르니 이제 맛있는 냄새의 유혹이 덜합니다.

서강대대학원 산악회(OLC)와 인연이 되어 서울 살아도 서울을 몰랐던 여러 곳곳을 여행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광화문 탐방, 땀 흘린 성곽길 투어, 맛있는 수다를 즐긴 하루가 짧게 느껴집니다. **OLP**

“협회장 취임에 OLC 대상까지 지난해 겹경사 났다”

국내최초 청소년 영자신문 타임즈코어 발행인 이덕수 회장



이덕수 회장 프로필

이덕수 회장은 국내 최초 청소년 영자신문 ‘틴타임즈’를 창간했으며, 초 · 중등 영자신문 ‘주니어타임즈’, ‘어린이 영자신문 키즈타임즈’와 유초등 영자신문 ‘킨더타임즈’를 발행하는 ‘타임즈코어’ 발행인 겸 회장이다. 한국전문신문협회 26대 회장도 겸하고 있다.

“2014년은 제게 많은 감사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영자신문 타임즈코어를 창간한 이덕수 회장의 말이다.

2014 OLC 경영대상을 수상한 그는 “지난해는 가정적으로도 회사적으로도 많은 감사가 있었던 해”라면서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에 제 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며 겹경사를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귀한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 감사드린다”고 밝힌 이 회장은 “언제든 수상턱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덕수 회장과 OLC의 인연은 OLP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중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맺어졌다. 그 지인이 누구인지 이 회장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OLC로서는 참 좋은 분이다.

이 회장은 OLC 대상을 노리는(?) 다른 회원들에게 “노린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면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 중 가장 공평한 것이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준 시간이고 나의 미래는 물론 누구의 미래도 모르게 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공평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12시경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회사출근은 7시 15분 쯤, 귀가시간은 11시 30분이라는 원칙을 지켜왔다는 이덕수 회장은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LP**

“홍보맨은 튀면 안 된다… 신뢰가 생명”

2014 OLC 언론대상 강기수 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



강기수 팀장 프로필

1962년생. 대구 능인고 졸업 / 한양대 법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졸업 / OLP 10기 / 1987년 ㈜한화 입사
2004년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홍보팀 부장 / 2006년 ㈜한화 기획실 부장
2009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홍보팀 상무보 / 2013년~현재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커뮤니케이션팀장(상무이사)
2010년~현재 한국PR협회 운영이사

“그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깨지 않으려 했다.”

OLC 언론대상을 받은 강기수(53) 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상무)은 ‘20년 홍보맨’의 철칙을 이렇게 요약했다.

(주)한화에서 총무 일을 배우다가 느닷없이 홍보로 ‘차출’된 때가 1994년 11월 말. 1990년 5 · 8 부동산 조치로 나라가 계속 시끄럽던 무렵이었다. 무서울 게 없던 ‘입사 7년차’ 때이기도 했다. 불러도 달려갔고 안 불러도 달려갔고 만나면 주는대로 마셨다.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 재벌기업에서 홍보로만 오롯이 20년이었다.

강 팀장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좋아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특유의 사람좋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세상 얘기에 취해 1년을 하고 2년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그는 “어느 순간 회사를 대표해 말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내심 자긍심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잠깐 홍보를 떠나 있던 시절도 있었다. 2006년 3월 (주)한화 기획실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그룹에 큰 일이 터지면서 2008년 10월 또 다시 불려왔다.

“결국 홍보의 기본은 하나더라. 바로 믿음이다. 혈기왕성하던 신참 때나 쓴맛단맛 다 겪은 지금이나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 있다. 누구를 만나든 신뢰를 주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잘 모르면 (거짓말하지 않고)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쌓은 믿음은 2013년 5월 그룹이 또 한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홍보 책임자로 끌어올리게 했다. 하지만 가까웠던 선후배와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도 지켜봐야했다. 기쁜 마음보다는 무거움이 더 컸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한화생명)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 ‘왜 한화여야 하는가’를 입이 부르트게 설명하고 마침내 M&A(인수합병)에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이 ‘홍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강 팀장은 언론대상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사코 “OLC 선후배들과 동료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섹시한’ 멘트를 날려야 지면에 멋있게 나온다고 협박(?)을 해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서 예의 후덕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마디를 꽂는다.

“홍보맨은 튀면 안 된다.” **OLP**

“정 나누고 배우고 OLC 멤버 자주 만나세요”

OLC 사랑으로 똘똘 뭉친 초기멤버 김광기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본부장



김광기 본부장 프로필

김광기 본부장은 중앙일보 입사 후 25년 간 거시경제 · 금융 · 증권 · 국제경제 분야를 커버한 경제 전문기자. 금융시장과 정책, 돈의 흐름을 심층 분석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썼다. 편집국 부국장, 중앙선데이 경제에디터, 경제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현재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본부장이다. 중앙일보와 중앙선데이에 경제 칼럼을 쓰고 있다. 기자가 되기 전 금융감독원에서 3년간 일했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서강대 경제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그저 만나면 반가워 정을 나누고 뭐든 배울 수 있는게 OLC 멤버들입니다.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모두 존경스럽고 제가 앞으로 인생 끝까지 함께 할 형님이자 친구입니다.”

이렇게 OLC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찬 2014 OLC 언론대상 수상자 김광기 중앙일보 미디어 본부장과 OLC의 첫 만남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일 당시 교수와 이장규 당시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의기투합해 만든 OLP 1기의 팜플렛을 기사화한 것이 OLP와의 첫 인연이다.

비교적 초기멤버인 OLP 3기로 합류한 김 본부장은 “OLC는 제게 매우 소중한 모임이기에 더욱 기쁩니다”라며 “OLC 멤버라는 자부심을 갖고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김 본부장이 속한 OLP 3기는 매월 정례모임을 갖는다. 다음번 모임에서 김 본부장이 수상턱을 쏠 예정이라고 한다.

김광기 본부장은 “당시 모든 강의가 알찼고 3기 원우회 활동도 제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라며 “아울러 OLP 저널 편집위원으로서 OLC 멤버들의 소통에 나름 역할을 한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본부장은 OLP 과정 수료를 인연으로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더 공부해 아예 석사학위를 땄던 것을 잊을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중앙선데이 경제 에디터를 지낸 경력 답게 ‘1% 금리 생존법’을 다룬 책을 후배들과 함께 최근 펴냈다며 “1% 금리현상을 어떻게 봐야할지, 우리는 어떻게 서바이브 해야할지 고민해 봤다”며 OLC 멤버들의 일독을 권했다. OLP



로컬푸드 사업지원

농민들의 직거래를 돕는 어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

농작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농가 소득 확대 및 선순환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를 시작으로 김포, 포천, 세종 등 지속적인 지역 확대를 통해
ICT를 통한 농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정보 격차를 겪고 있는 30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음성 도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도서로 구성된 27만 5천여 건의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에게까지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iveU

언제 어디서나 기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로
지금까지 약 20만 건의 참여를 이루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CT를 통해 편리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ICT가
행복을 키우는 직거래장터가 되고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이 되고
행복을 나누는 기부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ICT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SK telecom

불모지 구로공단, 아시아 최대 도심형 아울렛 탈바꿈시킨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



글 _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OLP 3기)

가산디지털 단지에 들어선 마리오아울렛은 위대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된 대표적 공간이다. 가산디지털단지의 전신은 구로공단. 60년대 이후 90년대 외환위기 전까지 구로공단은 한국수출산업의 최대기지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입국을 상징하는 전초기지였다.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구로공단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수만 명의 남녀근로자들이 수출역군으로 소임을 다했다.

구로공단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폐허로 변했다.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수출업체들이 하나둘씩 동남아로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루 유동인구가 고작 10여 명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죽은 도시였다.

구로공단에 생명력을 부여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그 신화의 주인공이다. 홍 회장은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영환경 속에서 발상의 전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구로공단 개조작업에 나섰다. 아무도 찾지 않는 구로공단을 첨단 패션 유통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역사에 착수한 것.

관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발상이었다. 홍 회장은 쇠락한 구로공단을 첨단 패션타운으로 만들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대형 아울렛을 조성하면 손님들은 반드시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류업계의 만성적인 재고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류업체-고객-지역경제가 모두 윈윈하는 대역사였다.

예상은 적중했다. 홍 회장이 창조적 혁신과 열정을 쏟아부은 마리오 아울렛은 1관이 2001년 문을 열었다. 2관, 3관도 차례로 들어섰다. 마리오타운은 아시아 최대의 도심 아울렛으로 부상했다. 하루에 찾는 고객들이 12만 명이 넘는다. 요우커 등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들도 대거 몰려오고 있다. 첨단 IT빌딩들도 숲을 이루고 있다. 과거 수출공단 시절 성냥갑모양의 공장건물은 완전히 사라졌다. 최첨단 IT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다. 패션과 유통 IT가 집적돼 시너지를 내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부상했다.

구로공단을 환골탈태시킨 홍성열 회장은 기업가정신의 본보기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표(師表)가 된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3포세대'(결혼과 직장, 아이낳기를 포기한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불굴의 의지로 성공신화를 창출한 홍 회장은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준다. 아직도 개천에서 용이 날



“

구로공단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폐허로 변했다.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수출업체들이 하나둘씩 동남아로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루 유동인구가 고작 10여 명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죽은 도시였다. 구로공단에 생명력을 부여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회장이 그 신화의 주인공이다.
홍회장은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영환경 속에서 발상의 전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구로공단 개조작업에 나섰다. 아무도 찾지 않는 구로공단을 첨단 패션 유통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역사에 착수한 것.

”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홍 회장은 충남 홍성에서 12남매 중 7째로 태어났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맨몸으로 상경했다. 형제한테 200만 원을 빌렸다. 그가 봉재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30년전. 서울 대방동에 니트의류 봉재공장을 차렸다. 원사에서 제직 완제품까지 최고수준의 품질관리를 했다. 품질을 인정받아 일본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까르뜨니트란 고유브랜드로 수출과 내수판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국에 수십개의 매장에 니트를 공급했다.

시련도 많았다. 87년 서울에서 발생한 수해 때가 고비였다. 대방동 공장이 물난리를 겪었다. 일본에 수출하려던 제품들이 대거 피해를 입었다. 그는 눈앞에 캄캄했다. 일본 바이어에게 곧바로 상황을 설명하며 납기를 유예해달라고 사정했다. 일본 바이어는 이를 받아들였다.





> 홍 회장은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지켜온 원칙이 있다.
> 정직 신용 윤리경영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이다. 그는 "정직이 이긴다"는
> 확고한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 정직해야 값진 열매를 맺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 경쟁력은 정직에서 나온다고 확신한다.

97년 외환위기도 엄청난 시련이었다. 마리오가 공급하는 니트의류점 60여 개 매장 중 12개가 부도로 쓰러진 것. 유동성 위기가 몰려왔다. 그는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했다. 니트의류도 4계절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했다. 백화점등에 사시사철 니트의류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까르뜨니트는 니트분야에서 장기간 1등을 고수하고 있다.

홍 회장은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지켜온 원칙이 있다. 정직 신용 윤리경영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이다. 그는 "정직이 이긴다"는 확고한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 정직해야 값진 열매를 맺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 경쟁력은 정직에서 나온다고 확신한다.

예컨대 마리오에 입점한 의류에 대해선 정품을 고수하고 있다. 연차를 속이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비인기제품을 마치 인기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제품을 속이면 고객들이 금새 알아차린다는 것. 마리오아울렛은 중국 관광청으로부터 2년 연속 품질인증서를 획득했다. 이는 마리오와 갤러리아 백화점 두곳 뿐이다. 해외에서도 마리오의 정도경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다. 납품업체를 배려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금난을 겪을 때, 납품업체에 고통을 전가하지 않았다. 임직원들과의 한솥밥정신도 강조한다. 마리오는 창업이래 한번도 종업원 월급을 연체하지 않았다.

그가 마리오 타운의 입점수수료를 백화점의 절반수준으로 내린 것도 상생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좋은 옷을 싸게 제공하면 손님들은 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마리오와 종업원,





> 홍 회장은 지난 2월 4일 서강대에서 명예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굴뚝으로 뒤덮였던 구로공단을 10여 년만에 첨단 패션유통단지로 상전벽해(桑田碧海)시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유기풍 서강대 총장은 "세계 패션 유통업계의 아름다운 신화를 창출하신 한 경제인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입점업체는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경영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리오타운은 홍 회장의 불굴의 의지와 열정이 없었으면 햇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와 산업공단은 기존 규정을 들이대며 패션타운 전환은 안된다고 발목을 잡았다. 관료들의 전형적인 인허가규제였다. 창의와 혁신, 발상의 전환과는 담을 쌓고 사는 관료들이었다. 홍 회장은 관료들의 몽니와 규제타령을 이겨냈다.

마리오관 건설과정에서 산업공단의 방해는 집요했다. 1관과 2관에 업체들이 입점해서 장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산업공단 측은 5개거래 은행에 공문을 보내 입주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관료들의 발목잡기에 걸린 홍 회장은 마리오 3관을 완공하는 데 9년을 보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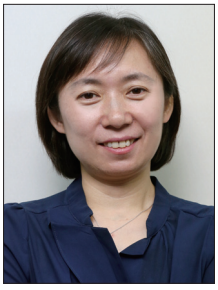
마리오 1, 2, 3관에는 현재 600개 업체가 입점했다. 하루 유동인구도 12만명이 넘는다.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이 결실을 맺었다.

홍 회장은 지난 2월 4일 서강대에서 명예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굴뚝으로 뒤덮였던 구로공단을 10여 년만에 첨단 패션유통단지로 상전벽해(桑田碧海)시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유기풍 서강대 총장은 "세계 패션 유통업계의 아름다운 신화를 창출하신 한 경제인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정직 윤리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주력하겠다"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수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OLP**

OLP 18기 졸업여행





글 _ **신혜선** 머니투데이 문화부장(OLP 18기)

페이스북 친구 몇 분들이 바다 건너 제주도에 가서 이른 봄꽃을 보고 왔다고 자랑이 넘친다. 서울 경기서는 아직 보기 힘든 샛노랗게 빛나는 복수초나 음전하게 하늘거리는 변산바람꽃 사진이 페이스북 담벼락에 넘쳐난다. 쳇.나도 다녀왔는데…. 불과 얼마 지났다고 계절이 그리 바뀌었나 억울하기까지 하다.하지만 여행은 어느 곳, 언제 가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이른바 '맛집'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추억이란 녀석은 시간과 장소는 가물가물해져도 함께 한 이(들)만큼은 더디게 잊는 법이지 않은가. 여행의 핵심은 '누구냐'와이다.

남쪽이라 해도 아직은 겨울 바다의 매서운 바람이 위세를 떨었던 1월 15일부터 2박 3일 일정.

'다 늙어 졸업여행이라니 후배들이 웃겠다. 더 먼 바다 건너도 아니고 제주도라는데 2박 3일씩이나? 이거 가도 돼? 갈 수 있을까?' 솔직히 가기 며칠 전까지도 망설임과 더불어 불안감이 있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이른 아침 공항에서 일행들을 만나서야, 그제야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발 전 각오! 이미 방문했던 곳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지만 '낙오 하지 말자, 진짜 친구가 되자, 술은 되도록 많이 마시자, 회사 일은 전폐다.'

도착 첫날은 동기 전원이 함께했다. 다음 날부터는 관광조와 골프조로 나뉘기 때문에 저녁 식사 빼고 전체 여행 일정을 공유하는 것은 오늘이 유일하다. 그만큼 시끄럽게 놀아야 하는 게 맞다.(물론 지켰다.)

처음 간 곳은 '사려니숲'이다. 키가 큰 삼나무가 우거진 곳. 하늘이 흐리고 조금 추웠지만 걸을 만 했다. 더운 날도 우거진 숲 덕에 그늘져 걷기에는 안성맞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와 숲을 좋아하는 내 성미에 꼭 맞다. 다음에 제주도를 방문하면 다시 올 0순위로 기억!.

이름이 신기해 스마트폰을 검색해보니 '사려니오름'을 뜻하는 듯하다. '사려니'는 '실 따위를 흩어지지 않게 동그랗게 포개어 감다'는 뜻의 제주어란다. 동그랗게 말아진 털실뭉치? 분화구와 오름의 형태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인가 혼자 생각해봤다. 좀 쳐져 걷다보니 뒷모습들이 아직 서먹서먹한 듯, 그저 '삼삼오오'다. 형광등처럼 뒤늦게 떠오른 생각. 갤럭시노트2로 출퇴근, 산책길 사진 찍는 취미가 있다. 그간 OPL 18기 워크샵이나 모임에서도 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모임 소통 공간인 밴드에 올리지 못했다는 걸 떠올렸다. 실은 폰에 밴드를 설치하지 않은 게으름 탓이다.

사진을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고, 걸음이 좀 쳐졌지만, 밴드부터 내려받았다.(대한민국 네트워크 속도는 짱이다!). 몰래 찍은 스냅사진이나 풍광을 찍은 사진을 밴드에 바로바로 올렸다. 멀찍이 앞서 가시는 이한식 교수님, 김홍균 교수님, 박정수 교수님께서 말 대신 밴드로 답하신다. "신부장, 짱! 멋져부러!"

옆에 두고도 디지털로 대화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세상이 여행 중에 펼쳐졌다. 못 오신 서울 이인실 교수님은 실시간 밴드 소식에 '우신다'. 아, 우리의 '군기반장'께서 참석하셨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 오지 않은 동기들을 애타게 하겠군.

'낮술 폭탄 한잔'으로 제주도착 신고를 가볍게 마쳤다. 이번엔 '에코랜드'다. 이거야, 원 이러다 머리가 너무 맑아져, 돌아가면 서울 생활이 되겠나 싶을 정도다. 사실 제주의 매력은 인공으로 꾸며진 박물관이나 무슨 무슨 랜드가 아닌 '섬' 그 자체이니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코스이긴 하지만 말이다.

첫날 '제주의 푸른 밤'은 '19금'이다. 박필준 18기 회장(화일약품 대표)님이 회장으로 손색없는 '개인기'를 펼쳐주셔서 우리 모두 배꼽을 잡고 뒤집어졌다. 어디서도 못 볼 '쇼'를 '배웠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뿐, 각자 추억하자.

둘째 날, 관광조만의 동선이라 좀 더 오붓해졌다. 하지만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절로 나오는 날이 이어졌다. 좌우명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걷는다. 그리고 제주 바람과 맞선다'이다.

이날은 '붉은 것만이 동백꽃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배운 날이다. 제주도 동백동산 '카멜리아 힐'에서는 모두 70년대 영화 주인공들이 됐다. 동백나무 아래서 유치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그네도 탔다.

제주 바람과 제대로 맞선 것은 요트 위다. 섬에서 바다를 보는 게 아닌, 바다 위에서 섬을 보는 건 색다르다. 주상절리대와 중문 해수욕장의 풍광은 바다에서 봐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너무 추워 선상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는 흠은 있었지만, 1월의 제주 바람을 정면으로 대적했다는 추억을 남겼다.

여행 마지막 저녁은 제주의 '불금(불타는 금요일)'이다. 사실 다 끝나는 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합류한 동기들도 꽤 됐다. 바쁜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합류한 동기들의 맘이 더 크고 감사하다. 마지막 날 아침에 도착한 박민수 원우(뉴시스 편집국장)는 기립박수를 받으실 만하다. 물론 이는 '벌주'를 전제로 한 인사이기도 하지만.

제주 마지막 밤의 하이라이트는 2차를 거쳐 3차, '검사 방 어지럽히기'로 이어졌다. "하재욱 원우(사법연수원 교수/검사)의 회사 방에는 절대 가지 맙시다"라는 농담에 모두 박장대소한다. 청소도 안 하고 빠져나왔다는 미안함이 남았다.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올라가야 하는 남형식 원우(하나은행 홍보부 차장)가 무사히 서울에 갔나, 그것도 조금 걱정 됐다.

술은 덜 깼지만, 또 걷는 아침이다. 작은 몸이 아름다운 분재원(생각하는 정원)과 녹차밭(오설록)에 들렀다. 바람이 더 거세졌다. 나도 모르게 "생각을 얼게 하는 정원이군"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바람은 그저 겨울바람이 아닌 봄을 담았던 게 분명하다. 오설록에서 처음 만난 '돈나무'와 '치











자' 열매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하지만, 봄기운보다 더 따뜻했던 건 여행을 함께 한 동기 아닌 동기들의 미소였다. 삼삼오오 두런두런 이었지만, 자연을 얘기하고 떠나온 일상을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다. 대학 졸업여행을 못 갔다. 3학년 전공필수였던 '고적답사'를 끝으로 2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떼를 지어 서울에서 그리 떨어진 곳을 여행한 건 이십 년이 더 된 일인 셈이다.

조금은 설랬다. '다 늙은 아버님, 어머님들 자격이라지만 명색이 졸업여행이잖아. 무리하지 않은 사고 좀 쳐서 교수님들 골탕도 먹여야 할 텐데'라는 졸업여행다운 꿈도 꾸면서 말이다.

솔직히 동기라지만, 인연은 6개여 월이 전부다. 직업도 다르고 직위와 나이도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동기'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함께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주고, 챙겨줬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어린애들처럼 웃고 떠들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진정한 동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니 '현장학습'을 더 강화하시라고 교수님들께 건의를 드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늦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일정을 준비한







박 회장님과 성환두 사무총장님(LG화학 홍보팀 담당상무), 늘 '재롱둥이'처럼 모임 활력을 위해 애쓰는 이정우 원우(KT 언론홍보1팀장) 등 집행부 고생에 감사인사 드린다. 다 같이 바쁜 조직 생활인데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18기를 이끌어왔으니, 여행도 우리 일상도 실은 거저먹는 거다. 물론 지도교수님들의 참여는 수업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졸업여행까지 감사함을 넘어 감동을 주셨다. 아, 졸업여행의 중요한 성과를 잊을 뻔했다. 졸업여행 중 '70,71년생'들의 일명 '멍멍꿀꿀' 모임을 결성했다. 마지막 날 회식 때 박장우 원우(한화그룹 커머니케이션 부장)가 발의하고, '원더우먼'이란 닉네임으로 활약 중인 김수영 원우(신한금융투자 홍보실 부장)가 재청했다는 소문이다. 시작할 땐 '개돼지 모임'이란 원초적인 이름이었다. 벌써 1차 모임도 했다.

반올림 오십이 되는 '아짐', '아재'들이지만 OLP에서 만큼은 막내 축에 속하니 어쩌겠나, '멍멍 꿀꿀' 짖으면서 귀여움을 떠는 수밖에. 아, '18기 동기 행님들' 서운해 하지 마시라. '멍멍 꿀꿀'의 최대 소명은 OLP 18기 모임의 활성화다. '행님 동기'들을 위해 우리는 그저 판을 깐다는 얘기다. 맞지 얘들아? 멍멍꿀꿀 꿀꿀멍멍~. **OLP**

박필준 회장 인/터/뷰



글 _ **박성호** 아시아경제신문 금융부장(OLP 18기)



'강렬하다.' 그의 첫인상에 가장 적합한 단어일 게다. 조금 과장까지 하자면 '전사의 강렬한 기운'까지도 내뿜고 있었다.

그를 만난 건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서강대 OLP 18기 입학식이었다. 2014년 9월 12일 저녁 6시 서강대 마테오관에 40여 명의 원우들이 속속 모여들어 첫 만남을 가졌다.

한겨울의 반소매 셔츠만큼이나 어색한 관계를 잊기 위해 스마트폰을 매만질 때 그가 조용히 1조 테이블에 앉았다. 탄탄한 몸과 검게 그을린 얼굴, 팔주변에서 언뜻 비치는 잘게 갈라진 잔근육은 격투기 선수 추성훈을 연상케 했다.

그가 앉은 테이블 위에는 화일약품 박필준 대표이사라는 종이명패가 놓였다.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박 대표와의 강렬한(?) 대화가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성호입니다."

"네. 박필준입니다."

"화일약품은 회사가 생긴지 오래 됐나요?"

"(뜸을 들인 후) 조금…"

무표정한 그의 얼굴과 단문대답에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시나요."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답했다.

"이것 저것…"

주변에 앉은 1조 원우들이 조금은 답답했는지 이것 저것 한두마디씩 건넸지만 박 대표는 단답형 이상의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양반 신기하네. 뭐지?"

박 대표에 대해 궁금해졌다. 회사를 검색해보니 시가총액 1,000억 원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원우를 소개하는 PT자료에서 그는 1960년생이었고 2012년부터 화일약품 대표이사를 맡았다.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니 최대주주였다가 지분을 매각해 현재는 2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지분을 보유한 오너형 대표이사. "그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코스닥 대표로군."

그런데 포털사이트에서 그의 대표이사 취임을 알리는 짤막한 기사 중 한 줄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영업사원에서 시작해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

화일약품은 1974년 조그만 개인사업체로 출발했다. 박대

표가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1979년 원료의약품 도매업의 시작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기준 942억원 매출액에 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회사 역사에서 영업사원 출신 박 대표가 세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기억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외환위기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 일어났다. 1998년 당시 국내원료의약품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제가격이 너무 비쌌다. 수급 또한 원활하지 못했다.

당시 영업담당 이사였던 박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남들 다 몸집 줄일때 나온 역발상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특허권 11건 등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일부품목들을 화일약품이 직접 제조함으로써 수급과 완제품의 원가절감에 기여했다.

화일약품은 지난 2006년 국내최초로 코엔자임 Q10 (Coenzyme Q10) 제조개발에 성공해, 본격적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코엔자임Q10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 성분으로 비타민Q라고도 불림). 2007년에는 수용화에 성공한 CLA (Conjugated linoleic acid. 공액리놀렌산)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다. CLA는 체지방분해에 효과적으로 식약청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강렬했던 박 대표의 카리스마는 18기 원우회장으로 추대된 후 '소프트한 카스텔라'로 극적 변신을 한다. 성환두 사무총장 양규석 사무처장 등 몇몇 지인들과 4교시(정규 수업 후 맥주집에서 한잔 걸친 3교시 후 근거리로 이동해 소주잔을 팔목이 아프도록 꺾은 허름한 횟집 수업)에서 박 대표는 중심을 잃지 않는 리더십은 물론 좌중을 사로잡는 유머까지 선보이기 시작했다.

일천한 글솜씨 때문에 그의 표정과 어투, 손짓 하나하나를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형님, 동생으로 상호 호칭을 부르게 된 것은 박 대표의 근엄함 얼굴에서 문득 터진 웃음만큼이나 상큼한 관계형성이었다.

CEO로서 그는 어떤 사람일까. 많은 경영자들이 그렇듯 '독불장군인 듯, 독불장군 아닌, 독불장군같은 CEO'일까? 박 대표와 16년간 한솥밥을 먹은 화일약품의 박정근 이사의 전언이다.

"박 대표님은 중소기업 CEO로서는 드물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조직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경영자입니다. 권한을 위임하고 실무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큰 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죠."

부하 직원의 홍보성 멘트 냄새가 진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임직원들과 맺고 있는 소소하면서도 끈끈한 관계를 보면 그의 전언이 허언이 아님을 할 수 있다.

우선 박 대표는 사내 동호회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동호회 이벤트를 직접 준비도 한다. 산악회 동호회는 매년 여름 청평댐 등으로 물놀이를 기획하고, 손수 먹거리등을 준비한다. 직원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기업에 필요한 의견은 사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만나고, 의견이나 산업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즐긴다.

화일약품 임직원들의 이같은 증언(?)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건 서강대 인근에서 함께 한 술자리는 물론, 부산 세미나, 제주도 졸업여행에서 그가 보여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강력한 정신력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8~9일 1박2일의 짧은 부산 세미나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5시간 넘게 운전해 내려가던 중 박 대표로부터 그만의 색깔을 품은 문자가 왔다.

"어디쯤" 물음표조차 없는 이 문자를 받고 위치를 설명해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박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ㅇㅋ' 지극히 간결했지만 장거리 운전하는 이에 대한 배려였다.

두주불사로 8일을 넘겨 9일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지만 그는 스코어카드에 싱글을 그렸다. 서울 술자리에서 '밤새 술마시고 나가도 싱글을 친다'는 그의 골프실력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건 오롯이 정신력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 1월 15~17일 제주도 졸업여행에서 역시 그는 30여 명의 원우들 앞에서 체면을 접고 유쾌한 모습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15일 저녁에는 신무기인 폭탄제조법까지 동원했다. 그의 리더십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16일에도 자정을 넘겨 하재욱 원우 룸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그는 듣기를 즐겼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의 진심과 열정,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신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없는 그만의 매력이다.

박 대표는 비록 주변의 강권에 못이겨 OLP 18기 원우가 됐고 자치회장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척 뜻깊었다고 털어놨다. 제주도 졸업여행에서 늦은 밤 살포시 내보인 그의 속마음이다. 또 이한식 경제대학원장님을 비롯해 김홍균, 이인실, 박정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걸 잊지 않았다. **OLP**

HYUNDAI MOBIS

새 차처럼 **든든하게**
새 차느낌 **오래오래** ♪



순정부품은 출고할 때 부품과 같으니까 차량 성능은 물론 안정성도 그대로
이제 부품 바꿀 땐 꼭 순정부품으로 바꿔달라고 말하세요

새 차 느낌 그대로 오래오래 타고 싶다면 현대모비스 순정부품



현대모비스 순정부품이란? 신차 생산에 사용되는 동일부품으로 현대 · 기아차가 품질을 인정하고 현대모비스가 책임 공급하여 항상 최적의 성능과 안전을 약속합니다

OLP
E.S.S.A.Y.

아들의 꿈은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다
유복환 월드뱅크 이사(OLP 11기)

눈과 입이 호사한 남도여행
김수영 신한금융투자 홍보실 팀장(OLP 18기)

소통의 미학 그리고 OLP
이정우 KT 언론홍보팀장(OLP 18기)

총알보다 더 무서운 포퓰리즘
유택형 연합뉴스 컨텐츠 평가위원(OLP 18기)

평안들 하신가요?
김수경 홍보대행사 다우(OLP 12기)

아들의 꿈은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다



글 _ **유복환**
월드뱅크 이사 (OLP 11기)



몇 년 전 대학생이 된 아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했다. 멋진 글씨체를 새긴 액자였다. 그런데 액자에 담긴 글의 내용이 뜻밖이었다.

"봉 준호 감독보다 더 훌륭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목표가 새겨져 있었다. 아내와 나는 이 선물을 받고 조금 당황했다. 솔직히 크게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아이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 영화감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편씩 영화를 보고또 필이 꽂히는 영화는 보고 또 보고 심지어 시나리오를 구해서 읽어보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복싱동아리와 함께 영화동아리에 가입했다. 동아리 활동으로 영화를 찍는 것도 보았고수업도 전공과목인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소설창작, 시나리오 등 영화관련 과목을 들었다. 그런데 영화감독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좁은 길, 험한 길이 아닌가? 영화작업은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도 상업예술이다. 학력도 영어구사력도 큰 도움이 안된다. 그야말로 '웃통벗고' 완전경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나이가 들어 '이거 아닌데' 해도 물러설 퇴로도 없어 보인다.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꼭 감독만 해야되나좋아하는 영화와 가까이 하기위해 다른 방도도 있지 않나.

영화에 투자자금을 모으는 일로 영화산업에 기여한다든지영화 관련된 회사에서 영화종사자와 일하며평생 영화관련 일을 즐기든지.....아내와 나는 지켜보기로 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면 평생 아쉽지 않겠나' '그러다가 꿈이 바뀔 수도 있을 거고...'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하고 산다는 것,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 아닌가 '아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자신의 목표에 진지해졌다 군대를 다녀온 아들이 대학 3학년이 된 어느 날이었다. 집에 오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엄마아빠에게 물었다.

"한 한기 휴학 하면 안될까요?" "무슨 일로?" "아는 선배가 이번에 장 철수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는데 도와

달라고 해서... 그 감독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이라는 좋은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무슨 일로 도울 수 있는데.." "연출부 막내로" "연출부 막내가 뭐하는 건데" "우선 장면의 슬롯(slot)을 치고, 그리고 모든 허드렛일을 하는..." 막노동을 하려가면서 저렇게 흥분하다니... 당장 '예스'라고 할 수 없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아내가 말했다. "저렇게 하고 싶어서 흥분되어 말하는데 승낙하지 않을 도리가 없네." "그래, 연출가 막내일이 막장일과 같다던데 고생해보면 영화일이 얼마나 험한지도 알겠지... "우리는 영화촬영 기간동안 휴학을 승낙했다. 아들의 역할은 무거운 촬영장비 들기, 촬영장소 헌팅하기, 시나리오 수정하기, 인터넷에서 저작권 지난 좋은 음악 찾아내기, 그리고 주된 임무는 카메라와 연기자 사이에서 슬롯을 치는 것이다. 추운 겨울날 비오는 장면 촬영은 아들에게 고역이었다.

많이 움직이면 촬영에 방해되니 슬롯을 치고 연기장면 근처에서 살짝 비껴있거나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있어야 한다. 모든 촬영진은 비 밖에 있지만 아들은 연기자와 함께 비를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 촬영신이 끝나면 자신을 챙기기 보다는 먼저 배우들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어야 한다.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물은 수증기가 나서 꼭 찬물을 써야 한다나...

만화가 원작인 그 영화는 비오는 장면이 유독 많았다. 만화 그릴때는 비오는 장면이 쉬우나 영화는 어디 그런가그해 겨울은 왜 그리 추운지... 아내는 그 겨울 날씨를 원망했다 그 영화가 '해품달'에 왕으로 나온 김 수현이 북한의 특수요원이면서 동네바보로 나오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다. 시사회장에 같이 갔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는데 연출부에서 아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생이 많았지"하니 "한 조직에서 막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익혔다"고 하며 아들은 성격좋은 건강한 미소를 보냈다. '영화 찍으면서 제대로 고생해보면 장래 희망이 바뀔 수도 있겠지'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영화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그즈음 아내와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를 보러갔었다. 비오는 장면이 딱 한번 있었다. 아내 말 "영화 너무 쉽게 찍었네." **OLP**



눈과 입이 호사한 남도여행



글 _ **김수영**
신한금융투자 홍보실 팀장(OLP 18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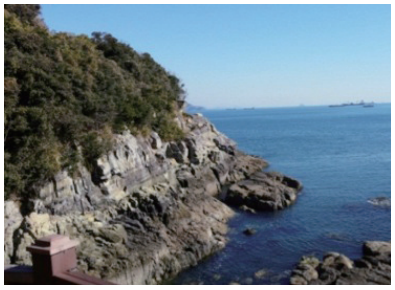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 1월 말 마음 맞는 친구들과 1박 2일 여수 여행을 떠났다.

한 시라도 빨리 여수바다를 보겠다는 마음에 남들은 달콤한 늦잠을 즐길 토요일 아침 6시 53분에 우리는 KTX에 몸을 실었다. 행여 기차를 놓칠까 봐 자명종을 여러 개 옆에 두고 잤다는 친구, 3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잠을 깼다가 아예 포기하고 하고 왔다는 친구, 모두들 다크서클이 줄넘기를 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다. 우리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야호!

기차는 3시간 10여 분을 달려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했다. 2년 전에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새로 건설한 엑스포역은 여수가 워너비 여행지가 되는데 기여한 일등공신이다. 택시를 잡아타고 5분 만에 숙소인 엠블호텔에 도착했다. 명성에 맞게 오동도와 다도해가 한눈에 보이는 시야가 확 트인 특급호텔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여수에 가서 꼭 맛봐야 할 음식 '여수 10미'(서대회, 장어탕, 게장백반, 여수한정식, 갈치조림, 돌산갓김치, 굴구이, 갯장어샤브샤브, 전어회(구이), 새조개 샤브샤브)를 찾아서 맛집 탐험을 시작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동백회관. 오동도에서 가까운 이 곳은 예약은 필수다. 장뇌삼 한 뿌리가 쓴맛으로 입맛을 확 돋우어 준다. 찬 음식, 따뜻한 음식, 식사 순으로 상차림이 3번 달라진다. 서대회, 새우, 연어, 삼치, 굴, 회, 해삼, 멍게, 꼬막, 삼합, 전, 전복구이, 도미구이, 새우튀김, 갈비찜, 낙지꾸리, 간장게장, 된장국, 갓김치, 젓갈. 젓가락을 놓았을 때는 올챙이 배가 되었다.

푸짐한 점심만큼 느긋한 마음으로 오동도 산책에 나섰다. 동백열차를 타고 도착한 그곳에서 대나무와 동백나무가 나란히 우리를 반겼다. 대나무 터널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걷다 보니 낙원이 따로 없었


다. 동백꽃은 아직은 웅크리고 있었다. 3월이나 되어야 만개한다고 한다. 섬을 돌다 보면 푸른 바다내음과 함께 일출바위 물개바위 용굴 하얀등대 등 아름다운 풍광을 접할 수 있다. 여기서 팁! 여수여행 갈 때 셀카봉 지참은 필수. 셔터만 누르면 멋진 작품이 나오니까.

남해바다를 스릴 있게 구경하려면 모터보트 관람도 권할 만 하다. 15분 가량 오동도,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돌면서 햇빛에 부서지는 파도도 보고 귓가에 스치는 바닷바람도 느끼면서 절경을 실컷 감상했다. 보트를 타고 약 20분 정도 더 가면 남해금산과 보리암으로 알려진 남해에 도착한다고 한다. "두 도시가 이웃이구나. 다음엔 여수-남해 코스도 시도해 봐야지."

이어지는 코스는 여수해상케이블카. 해질 무렵 탑승하려고 6시쯤 길을 나섰다.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두 곳을 잇는 1.5Km 길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에서 타면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정상 커피숍에서 여수야경을 배경으로 커피 한잔을 즐기는 호사를 누릴 수 있어 좋다. 하늘 위에서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여수시내의 아름다운 야경이 눈 아래 펼쳐진다. 어스름 질 무렵 빨간색 하멜 등대가 파란색 바다 사이로 두드러진다.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돌산공원에 도착했다. 2월말까지 진행되는 빛노리야 축제로 돌산공원 인근은 화려한 빛의 축제였다. 돌산공원을 내려가는 길은 '여수 10경' 중 하나인 돌산대교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목이다. 밤이 되면 오색 불빛이 번갈아 가며 휘황찬란하게 교탑과 교각을 비춘다. 시시각각 변하는 다리가 너무 멋있다. 해질 무렵 돌산대교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돌산공원을 내려와 맛본 간장게장은 밥도둑이란 말에 걸맞게 맛이 일품이었다. 다들 양손에 게장 선물세트를 사들고 숙소로 복귀했다. 너무 피곤해서 그 유명한 해물삼합은 결국 먹지 못했다. 해물과 삼겹살 그리고 묵은지의 조화가 환상이라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간다.

일요일 1박 여수여행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기차에 올랐다. 갑자기 한 친구가 전주 비빔밥을 꼭 먹어야겠단다. 허겁지겁 표를 바꿔 전주에서 점심을 먹었다. 전주는 아무 식당에 들어가도 비빔밥 이 일품이다. 황포묵에 인목대비가 귀양지에서 빚었다는 모주를 한잔 곁들이면 이태백도 울고 간다.

비빔밥에 대해 품평을 하며 기차를 기다리는데 범상치 않은 빵집이 보였다.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유명 빵집 풍년제과였다. 수제 초코파이 선물세트를 사서 기차에 올랐다. 달콤한 초콜릿, 파이 속에 들어있는 딸기잼과 호두가 초코파이 맛의 비결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초코파이 붓세가 부드럽고 더 맛있었다. 1박 2일동안 두 도시를 누비며 눈과 입이 호사를 누렸다. 기차여행의 즐거움이 이런 것일까? **OLP**

소통의 미학 그리고 OLP



글 _ 이정우
KT 언론홍보팀장(OLP 18기)



토요일 오후 홍대 앞 카페.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터라, 모처럼 여유 있게 의자에 기댄 채로, 주위를 둘러본다. 역시 젊은이들이라 활기찬 대화와 웃음이 오고 간다. 그런데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저마다 테이블 위나 손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고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뭔가 입력한다. 심지어 연인끼리도… 둘 사이 사랑의 속삭임은 어디로 가 버리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4자간 미팅(?)을 하는 듯하다. 얼마 전 만난 지인은, "요즘 누구를 만나도 다들 사람을 앞에 두고도 '그 놈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아 짜증이 난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증기기관차가 도입된 초기에, 시속 30km의 속도에 두려움을 느낀 찰스 디킨스가 위스키로 마음을 진정시켰다거나, 독일의사협회가 "증기기관차의 빠른 속도는 뇌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지금 보면 그저 헛웃음이 나는 해프닝에 불과한 느낌이다. 이전의 혁명들이 사회 · 산업을 바꿔 놓았다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혁명(Data Explosion)은 사람 간의 의사소통까지 바꿔놓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과 연결이 가능하니 참 편리하고 열린 세상이 도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상당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Facebook, Band 같은 SNS,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많은 사람과 열띤 토론을 하며, 각종 기부와 심지어 구인 · 구직도 한다.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통방식과 문화이다.

문제는 이것이 자의든 타의든 불필요한 행동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방해해 버리는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다. 전세계 불특정 다수까지도 손쉽게 소통하면서 정작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데 각종 매체와 기기를 통해 한층 활발해진 '소통'을 논하는 요즘, 우리는 제대로 듣고 있을까?

어릴 적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보이는 것만큼이나 들리는 것이 많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간 시장터에는 넉살 넘치는 아주머니의 호객, 아옹다옹 정겨운 흥정, 자식 얘기까지 들려온다. 아마도 그것이 사람 사는 맛이었고, 재미였고 자연스레 어른들의 경제를 체득하는 도구였다.

생명체는 '보기'보다 '듣기'를 먼저 익힌다고 한다. 태아만 보더라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듣고, 태어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리를 들음으로써 입을 떼지 않는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자연이, 사람이, 심지어 사물까지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만큼 듣는 것은 세상을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일이다. 듣는 것이 곧 소통의 기반인 셈이다. 눈 앞에 있는 상대의 말에 내 감각을 집중하고 경청한 적이 최근에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ㅠㅠ

미생(未生), 토토가(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K팝스타 시즌4 …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허무하게도, 최근 나를 울렸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다.^^ 드라마는 그렇다 쳐도, 예능을 보고 울다니… 4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의 변화로,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던데 과연 호르몬 변화 탓일까?

곰곰 생각해 보니, 셋을 관통하는 무엇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완생(完生)을 꿈꾸며 하루 하루 시행착오를 겪는 장그래! 그의 좌충우돌과 좌절, 자그마한 성장을 바라보며 자연스레 내 신입사원 시절을 오버랩하게 된다. 토토가의 무대를 수놓은 터보, 쿨, 엄정화, 김건모! 그들의 스테이지에 내가 같이 서 있다. MT와 무도회장에서 젊음을 불사르던, 순수하고 화려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90년대 그 시절의 내가, '음악'이라는 목표 하나로 상경해 고시원 단칸방 생활을 하면서도, 열정을 불사르는 K팝스타 10대 지원자의 모습은 감동과 응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공감, 추억, 꾸미지 않은 '날' 것의 감동! 비단 이것은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에 그치지 않고, 우리네 의사소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코드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OLP는 정말 모처럼 나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언론인, 관료, 법조인, CEO, 홍보맨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 경제 · 사회에 대한 명사들의 강의를 듣고 서로 자유롭게 질문이나 토론을 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불어 일으켰다. 특히 수업 후 호프잔을 기울이는 3교시나 세미나, 졸업여행 등을 함께 하며 OLP 18기 원우들은 어느새 추억을 공유하고 근심이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며 서툰 유머에도 낄낄거리는 든든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교양이나 지식을 내비칠 필요도 없고 혹여나 오해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쳐박아 놓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만의 대화에, 나눔에 그렇게들 젖어들고 졸업 이후에도 우리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몇 년이 지나면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변화시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든 주객을 분명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현명한 선택과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잠시만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귀에 꽂힌 이어폰을 넣어 뒤보자. 거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 차 소리도 들어보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하늘도 올려다 보자. 무엇보다 눈앞의 친구의, 연인의, 가족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눠보자. 어쩌면 잊고 있던 따스한 무언가가 가슴을 탁! 치지 않을까?

자주는 아니지만, 나는 운이 좋게도 OLP 18기 모임이나 OLC 모임에서 이런 유쾌한 경험을 계속 맛보지 않을까 싶다. **OLP**

총알보다 더 무서운 포퓰리즘

군사독재 끝나자 달콤한 정치수단으로 등장해 민주주의 위협
유권자의 매서운 분별력과 성숙한 국민의식만이 해결책



글 _ **유택형** 연합뉴스 컨텐츠 평가위원(OLP 18기)

현재 대한민국의 통치 바탕을 이루는 6공화국 헌법은 알다시피 1987년 '6 · 10항쟁'의 산물이다. 20년에 가깝게 장기 독재를 한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후 집권한 신군부 정권이 말기로 접어든 그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용솟음치던 민주화 열기에 역행하는 이른바 '4 · 13 호헌조치'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당연히 야당과 재야단체, 종교계의 반발이 격화됐고 5월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와 6월 연세대생 이한열군의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은 활활 타오르는 들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결국 전 대통령의 정치 후계자였던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6 · 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에 동의하며 민의에 무릎을 꿇었다. 그 결과 1971년 대선을 끝으로 15년간 봉쇄됐던 우리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 선출이 가능해졌다.

그때의 국민적 감격은 정말 대단했다. 1985년 말 군 복무를 마치고 막 대학에 복학했던 필자는 이듬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한국의 현대사가 용트림하던 순간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처럼 '총알(bullet)보다 강한 투표(ballot)'를 통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표면적, 형식적으로만 보면 1945년 해방 이후 우리의 최고 지도자들은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그러나 박정희 육군 소장의 군사 쿠데타 이후 집권한 군부 정권 지도자들은 사실상 총알로 국민을 위협하며 선거를 농락해 권력을 이어간 것이 진실이다. 그런 오욕 어린 4반 세기 역사 끝에 쟁취한 6 · 29 항복 선언은 얼마나 일제로부터의 해방만큼이나 감격스런 일이었다.

이런 전국민적 유혈 항쟁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로부터 지금의 박근혜 정부까지 27년간 우리가 꿈꾸고 염원했던대로 정치가 작동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했을까? 저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6 · 10 항쟁이 여전히 미완의 혁명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 길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다는 생각이다. 유권자들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해 뽑은 대통령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6명에 이르지만 똑 부러지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칭송할 만한 분이 누가 있는가? 그 원인은 곰곰이 따져보면 다양할 수 있다. 대통령 본인의 자질 · 능력 부족, 5년 단임제의 한계, 여야의 정치공학 중심 정쟁, 지나치게 비대한 대통령의 권한, 국민의 정치의식 미성숙 등등.

이 많은 이유 외에 현대 민주주의의 위협하는 근본적 문제 하나에 주목해 보자. 이 문제는 비단 한국 만에 아니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대다수 국가에도 등

장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부 출신을 비롯해 근 · 현대의 많은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무력, 다시 말해 총알(bullet)을 사용한 것은 역사를 통해 잘 알려진 바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 지도자 고(故)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설파하지 않았나. 하지만 무력에 의한 이런 독재가 시민혁명이나 내부권력 다툼으로 지구 상에서 점점 붕괴해가면서 총알은 사용하기 어려워졌고 그 위력도 차츰 빛이 바랬다. 대신 국민과 유권자들을 달콤하게 현혹하는 강력한 신무기로 이른바 '포퓰리즘'(populism)이 등장한다. 포퓰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는 정치 형태'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치 수단이다. 하지만 정치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정치가들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그럴싸한 약속을 유권자들에게 내세워 권력을 차지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총알이 국민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갈 가공할 무기라면 포퓰리즘은 달콤하고 유혹적인 마약과 같아 서서히 국민을 죽일 수 있다.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국민들의 허기가 더해 가고 점차 나라를 파탄 내며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거덜 낼 정도로 위력적이다.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해 한국 정치에서도 크게 거론돼온 각종 무상복지 약속이 구호 상으로 보면 매우 그럴싸하고 현란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엄청난 세금 추가 부담이란 전제가 있어야 실천 가능해야 한 일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이런 공약의 비극적 결과는 군부독재 붕괴 이후의 남미 여러 나라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국가 디폴트 등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민화 이후 한국에서도 많은 대통령이 집권을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각종 공약을 내세웠다가 임기 도중에 뒤집거나 나라 살림과 국민 생활을 아주 어렵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총알에서 해방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고 국민들이 저마다 권리와 자유를 진정하게 누리려면 정치 지도자들이 현란하게 포장해 내놓은 포퓰리즘적 약속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두 눈 부릅뜨고 정치인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한편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유혹적 거짓 또는 과장된 공약을 내놓는 후보는 준엄한 한 표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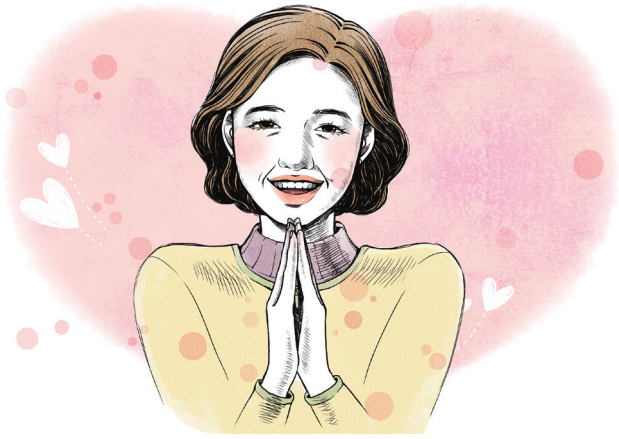
또 한가지 강조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왕정의 신민(臣民)과 공화정의 국민(國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조선왕조를 거쳐 일제 해방 후 수립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공화제 국가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최고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법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건 ·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대통령의 부덕 때문으로 몰아붙이고 책임을 추궁한다. 오죽하면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추궁하는 세태를 빗대어 '남편이 바람을 피면 미국 아내들은 변호사를 찾아가고 한국 아내들은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까. 지혜롭고 당당한 국민이라면 자신이 책임질 일과 국가나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또 다른 차원의 시련과 도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내놓은 선정적, 유혹적 포퓰리즘 약속을 독수리 같은 매서운 눈으로 가려내야 한다. 포퓰리즘적 공약은 총알처럼 무섭지 않은 대신, 달콤하고 그럴싸해 유권자들이 구미가 당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속아 넘어갈 때 찾아올 엄청난 국민적, 국가적 재앙은 무력을 앞세운 독재가 일으키는 것보다 더 엄청나고 클 수 있다. 또 우리는 21세기 대의 민주주의와 법적 제한 속에 나라의 통치권을 지도자에게 맡긴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기대와 책임 요구를 해야 하며, 19세기 이전 군주국에서나 있을 법한 무한 책임을 그로부터 요구해서도 안 된다. 국민들이 이런 소양과 자질을 확고히 할 때 민주주의는 또 한 단계 도약할 것이며 국민의 삶도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자기주도적이 될 것이다. **OLP**

평안들 하신가요?



글 _ **김수경** 홍보대행사 다우(OLP 12기)



2014년 마무리를 하며, 개인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홍보대행사의 사업 환경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이 힘이듭니다. 저는 홍보일을 시작한지 25년차, 홍보대행사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차가 됩니다. 늘 일이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뒤돌아 보니, 오늘이 아니라 그래도 어제가 일적인 환경으로는 더 나았던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을하며 지난 2, 3년간 무수히 많은 상식 밖의 별별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2014년은 5춘기(?)를 겪듯이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하기위해 회사에 전시해 둔 명품 브랜드의 제품들을 도둑질하고 잠수탄 직원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마치 아침 드라마의 사악한 케릭터 같은 직원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회사의 중요 자료들의 데이터를 싹 지우고 나가는 직원도 있었고, 잘 짜여진 기획으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홍보대행을 하며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해외 본사에서도 큰 만족을 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 브랜드에서 뜬금없이 경쟁 피티를 시키더니, 홍보를 해본적도 없는 젊고 새끈한 미모의 대표가 차린 신생 회사에 홍보 대행을 넘기게도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당시는 혜안이 없던 나의 눈을 찌르고도 싶은 심정이었고 무척 속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일이 일어 났는지, 문제와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와 가정, 아이 교육 등으로 매일 매일 종종거리며, 바쁘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온 나를 돌아보니 지친 중년의 모습만 남아있는 껍데기 같았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운동 센터 벽면에 적혀 있는 문구인데,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거금 –남들에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매달 아이 학원비를 생각하면 나에게는 거금 –을 들여 매주 3일씩 운동을 시작하고 5년간 손 놓고 있던 골프도 다시 시작하고, 지난 3월부터 무작정 혼자 미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하고 잠을 잘 수가 없으면 새벽 미사에도 가서 앉아 있다가 오고, 6월부터는 매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성당에서 예비자 교육을 받고 미

사까지 마치고 나오면 12시, 아이 학원 스케줄에 맞춰 끝나면 바로 골프 연습으로 끝나면 운동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올 12월초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성지 순례도 가야하고 수녀님, 신부님 면담에 기도문 시험을 본다고 해서 오랜만에 긴장하며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오랜만에 팔 저려가며 노트에 성경 필사 숙제도 하고, 일이 있어 한번 빠지기라도 하면 성경 독후감 숙제까지 세례를 받는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4번이상 빠지면 예비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6개월간 결석없이 다니는게 어렵기도 했지만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50분까지 예비자 교육을 가기위해서는 식구들의 아침과 점심 식사, 아이 간식까지 차리고 나오려면 일요일 아침은 평일 회사에 출근할 때보다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해야 하고 식구들의 비아냥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창 사춘기의 아이는 잔소리라도 하려하면 '성당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러나며, 일요일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고 싶다는 등, 본인은 학원 갈거면서 성당에 나가지 말라는 등' 도움은 커녕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하거나, 본인이 너무 좋아하거나'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나보니 무엇인가를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절실하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를 가지게 되고 건강과 외적인 자심감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하게 되고, 운동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신경쓰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변화중에 하나는 5, 6년 전 우연이 퇴근할 때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된, 해금 연주의 천제라 하는 정수년교수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이란 연주곡에 매료되어 해금 연주곡을 찾아 듣고, 언젠가는 해금 악기를 배울거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엄두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2014년이 가기전에 꼭, 내가 하고 싶었던걸 해보자라는 생각에 해금 연주 수업을 문화센터에 신청 했고 연습용 해금도 사서 이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평생 악기 하나는 잘 다루고 싶었었는데 이 글을 씀으로해서 좀 더 다짐을 합니다. 평생 친구같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곧 다가올 '50살을 멋지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가 올해와 내년의 목표입니다. 물론, 사업에 성공도 해야 하고, 안락한 노년을 위해 재테크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더 큰 계획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위한 변화가 절실한만큼 꼭 이루고 싶습니다. 전에는 괴로울 때, 앞날이 불안할 때, 말할때가 없어서 점집이나 사주상담을 통해 위안을 얻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문도 잘 못외우지만 늘 기도를 하게되고 그중에서 가장 변화된 부분은 작은 것에 이제껏 안하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 점입니다. 매주 운동삼아 양재천을 걷다보면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향기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얼마전 OLC 송년회에서 당첨이란게 되어 본적이 없는 나에게 생전 처음 아이패드 당첨에 감사의 기도를, 든든한 마음의 보험처럼 무조건 믿으려 합니다.

매주 일요일 성당에서는 미사 시작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비는 인사를 합니다. 서로에게 "평화를 빕니다."라고 옆, 앞, 뒤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큰 사안들에 관해, 나라에 관련해서 모두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저는 신부님의 미사 진행에 의해 시키니까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당장 답답한 상황에 대해 기도를 하고, 제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참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펼쳐 놓고 보면 가장 늘 먼저 갖고 싶은 것은 그래도 마음의 평화가 일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안들 하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평화를 빕니다." **OLP**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 ISO 14001 | ISO 9001 | 아웃소싱서비스 종합대상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Samkoo

자리의 가치를 아는기업

업무보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기업

일이 아니라 가치있는 자리를 만드는 기업

- P.M(Propety Management) : 임대차관리, 투자관리, 부동산 자산평가
- F.M(Facility Management) : 미화, 시설관리, 조경, 영선, 안내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생산, 제조, 유통, 공항 기내식, 조리보조, 사무 관리원, 판매, 단체급식, 구내식당운영
- ACOS(Albatros of Countryclub One-stop Service) : CC운영, 골프장 시설관리(FM), 코스관리, 마케팅, 클럽하우스
- SECURITY : 경비원 신임교육, 공항경비, 특수경비, 시설경비
- GLOBAL BUSINESS : [삼구-나스] 해외사업 - 카타르
- C.L(Contract Logistics) : 공급망 관리, 열차물류, 창고관리
- Silver Care Service : 노인 요양, 재가

Outsourcing Frontier

대표회사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http://www.samkoo.com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62-43 삼구빌딩 · 대표전화 02.828.3939 · 전국공통 1588.2239

OLC NEWS

OPINION LEADERS CLUB
SOGANG UNIVERSITY

OLC 모임 탐방

OLC 밴드 소개

OLC News 회원동정

OLP를 말한다

화합하는 OLC의 중추, 신구회장단 교류모임

글 _ OLC사무국





서강 OLP의 강점은 기수별 모임이 끈끈하다는 점이다. 이런 전통은 OLC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바쁜 걸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원우들이기에 기수를 초월한 OLC 모임의 활성화란 과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이제껏 OLC 내에서 전체 기수를 아우르는 대표적 친목 모임이라면 OLC 산악회와 간사장 모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8기까지 약 850여 명의 원우를 배출한 OLC의 당면과제는 역시 전체 기수를 아우르는 소모임의 활성화이다.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더 친밀해 지고 단합된 OLC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OLC 산악회는 공통의 취미를 기반으로 회장단의 정성된 추진력을 기반으로 매월 전국의 명산을 순회하는 건강한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간사장 모임도 각 기수별 간사장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친목을 다지고 OLC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OLC의 발전과 다양한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OLC를 기수를 초월해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임이 있다.

바로 "신구회장단교류모임"이다. 신구회장단교류모임은 실은 OLP 각 기수의 회장으로 구성된 공식 OLC 의결기구인 OLC 이사회를 모태로 하는 모임이다. OLP 각 기수의 회장단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취임이 정례화되고 있다. 몇 년간 OLP 기수 회장으로서 또 OLC 부회장으로서 여러 역할을 수행해 온 회장들이지만 기수 회장을 퇴임하면 특별히 만남을 가질 기회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를 서운하게 생각한 7기의 권영욱회장과 11기 정호진 회장이 2012년 10월 정기 이사회 담소 시간에 전임 회장과 현임 회장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함께 자리한 각 기수 회장들이 찬동하여, 전임 회장과 현임 회장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OLC의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











한 소통을 위해 "신구회장단교류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첫 회합은 이 모임을 제안한 정호진회장이 호스트를 맡기로 했다. 2012년 송년회를 겸한 "신구회장단교류모임"의 첫번째 만남은 여의도 선착장에서 선상 뷔페로 열렸다.

이 첫번째 모임의 방식이 전통이 되어 신구회장단교류모임은 모임 중에 다음 번 호스트와 날짜를 정한다. 매 격월에 개최되는 신구회장단교류모임은 그 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번개 골프회도 개최되고 있다. 첫번째 골프모임은 당진에 소재한 기업의 CEO를 맡고 있는 10기 김종헌 회장의 주최로 당진의 파인스톤골프장에서 개최되었다. 3월 28일~29일 양일간 1박 2일로 진행된 골프 번개 모임 이후로 참석자들의 친밀도가 매우 깊어졌다는 후문이다.

당진모임의 백미는 세계 최대규모의 현대제철소 견학이었다. 현대그룹 출신인 김종헌회장의 예약으로 VIP 견학코스로 돌며 고정주영회장의 꿈과 혜안이 담겨진 기업가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6월에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장재진회장의 주관으로 대명비발디CC에서 진행되었는데, 한창 브라질월드컵이 열리는 시즌에 참가자들은 숙소인 콘도에서 단체로 월드컵 경기를 즐기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고 한다. 이처럼 신구회장단교류모임은 첫모임후 격월 모임과 비정기적인 골프모임을 통해 친선과 우의를 다지면서 OLC 전체의 단합을 위한 중요한 소통 채널로 자리를 잡았다.

신구 회장단 교류모임은 2015년 1월에도 신년회를 겸해 3기 김형진회장의 주관으로 압구정동 굴비마을에서 풍성하게 개최되어, 2015년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OLC의 지속적인 발전에 신구회장단이 함께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처럼 우리 OLC의 리더인 신구회장단의 단합된 모임과 활발한 소통의 문화가 OLC 전체에 파급되어 더욱 끈끈하게 하나되는 OLC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길 기원한다. **OLP**

서강 OLC 밴드 '더 늦기 전에'



글 _ **송규일**(OLC 밴드 '더 늦기 전에' 단장)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
그건 안돼~ ♪정말 안되 가지마라~~~'

1977년 우연히 TV를 켰더니 '나 어떻게'라는 노래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전 중학교 3학년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MBC TV를 우연히 보다 밥 먹는 숟가락을 입에 물고 멍~하니 노래에 빠져 들었습니다. 단순하면서 순수한 노래 가사와 무엇보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드러머의 모습은 너무 멋있었고, 특히 그 당시 공부만 할거 같은 서울대학교 형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그룹사운드를 결성하여 멋진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저는 머리에 뭔가를 맞은 듯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 저들처럼 멋진 그룹사운드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지만, 1981년 군사정권 시절의 현실은 생각처럼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후 34년이 지나 SBS 이민주 기자의 권유로 들어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LP 6개월 과정 속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던 저는 민원표 원우, 오태성 원우, 이종선 원우, 박종국 원우와 함께 OLP 16기 그룹사운드 '더 늦기 전에'를 결성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9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첫 연습이 진행되었고, 2013년 6월 김홍균 교수님으로부터 OLP 17기 부부특강에 공연부탁 전화를 받고, 드디어 우리들의 첫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OLC송년회, OLP 18기 부부특강 등 공연이 잦아지면서 2014년 12월 OLC 전체 그룹사운드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며, 드디어 '더 늦기 전에' 9인조 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베이스 기타 민원표(16기), 김준수(3기)
1ST기타 오태성(16기)
2ND기타 이종선(16기), 배상완(16기)
전자오르간 김윤모(14기)
색소폰 김홍선(10기)
보컬 이동주(8기)
드럼 윤철현(8기)

2014년 12월 28일 첫 결성으로 한달에 두 번(둘째, 넷째 일요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밴드멤버들에게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희를 처음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 김홍균 교수님, 이인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년 OLC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서게 해주신 OLC와 강주엽 원우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더 늦기 전에'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밴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OLP**

기수별 활동소식

* 1기

1기 김기만 원우 : 아주경제신문 '일간아주중국' 편집국장으로 전직하셨습니다.
1기 이옥원 원우 : KB금융공익재단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 2기

2기 정세용 OLC언론부회장 : 2014년 7월 1일(화)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2기 이미경 OLC부회장 : 2014년 11월 1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3기

3기 이의춘 원우 : 인터넷 정론지 '미디어팬'을 창간하셨습니다.
3기 이동응 원우 : 2014년 11월 1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3기 이길수 원우 : 2015년 1월 17(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3기 이두형 OLC부회장 : 2015년 1월 24(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3기 홍성열 OLC명예회장 : 2015년 2월 4일(수) 서강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수여하셨습니다.

* 4기

4기 문승동 OLC부회장 : 2014년 9월 19일(금)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7기

7기 황선욱 원우 : YTN 미디어실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7기 강진순 원우 : 유진투자증권 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 8기

8기 고재학 원우 : 한국일보 편집국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8기 김영택 원우 : 자녀결혼식이 2014년 6월 7일(토)에 있었습니다.
8기 이종태 원우 : 국제신문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8기 류현하 원우 : 수출입은행 기술환경심의 실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8기 추왕훈 원우 : 연합뉴스 경기취재 본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8기 이의철 원우 : 아시아경제신문 편집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8기 김홍익 OLC사무총장 : 신한은행 국립암센터 지점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 9기

9기 노동일(민코코리아 대표) 원우 : 제32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9기 고형권(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원우 : 미래창조과학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승진 이동했습니다.
고 단장은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국가시책 유공포상'에서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9기 이민성(성우애드컴 대표) : 국내 최대부수를 자랑하는 KTX메거진 제작을 수주했습니다.
9기 고형규(연합뉴스) 원우 : 베를린 특파원으로 부임했습니다
9기 허무호(MBC) 원우 : 방콕 특파원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 사회 2부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9기 이낙원(KB국민은행) 원우 : 내방역 수석지점장으로 승진, 이동했습니다.
9기 김관억(신한은행) 원우 : 부천역지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9기 오승욱(우리은행) 원우 : 창동지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 11기

11기 정호진 OLC부회장 : 2014년 9월 20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1기 이홍렬 원우 : YTN 사이언스TV 본부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1기 조 훈 원우 : 2014년 10월 31일 KT mhows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 12기

12기 이시봉 원우 : 이디야커피 대표로 영전하셨습니다.

* 13기

13기 이헌주 원우 : ㈜삼호 상근감사로 이동하셨습니다.
13기 이상복 원우 :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영전하셨습니다.

* 14기

14기 이덕수 OLC부회장 : 2014년 7월 19(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4기 오동헌 원우 : SBS미디어넷 스포츠 · 경제채널 본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 16기

16기 손영득 OLC부회장 : 2014년 5월 27일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 수여하셨습니다.
16기 김두영 원우 : KOTRA 유럽지역본부장 겸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OLP) 19기 입학안내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지원자격**
- 경력 10년 이상의 중간언론인
- 공 · 사기업체의 임원, 간부
- 정부기관 고위 공무원
-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인사
- 법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5년 6월부터
- 장소 : 경제대학원 교학과
  Opinion Leaders Program(K관 111호)

*** 제19기 주요 학사일정 및 강의시간**
- 입학식 : 2015년 9월
- 강의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1월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OLP를 말한다

박필준 / OLP 18기 회장 / 화일약품 대표이사



2014년 9월, 보드랍고 화창한 명지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이른 가을의 선선한 색바람이 불었다. 2015년 1월 겨울 된바람이 채 끝나기 전에 OLP 18기 모든 과정을 마무리짓는 제주도 졸업여행을 마쳤다. 처음 지인들의 권유로 서강대 OLP에 발을 내딛자마자 "이 과정 참 빡세네"라고 읊조렸다. 출석체크한다는 이인실 교수님의 농담어린 협박에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매주 금요일 강의실에는 내 네임텍이 놓여있었다. 흔히들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삼각파도에 빠졌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OLP의 삼각매력, 아니 삼각마력에 빠졌다. 우선 탄탄하게 짜여진 커리큘럼이 지적갈증을 해소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우들과의 뚝배기 같은 인간적 네트워크가 여전히 마음을 훈훈케 한다. 여기에 교수님들과의 친교가 빛을 발했다. 모든 강의가 참 인상깊었다. 그 중에서도 첫 입학식에서 들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강의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으로 고초를 겪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지 등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안개속에 놓였던 세계 경제흐름의 맥을 짚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어느 한 강좌도 훌륭한 강사진이 나서지 않은 적이 없어 모두 기억에 남아 있다. 처음 OLP 18기 원우들과 만났을 때가 기억난다. 워낙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라서 첫 만남부터 원우들과 쉽게 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원우회장을 맡으면서 일각에서 18기 원우들 관계가 좀 소원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 원우들은 한결같이 뚝배기 같았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매주 매주 이어지는 수업과 3교시 맥주 한 잔, 여기에 부부강좌와 템플스테이, 부산세미나를 거치며 서서히 달아올랐다. 그리고 졸업여행에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들 거리낌없이 술잔과 속마음, 그리고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이런 관계는 향후 OLC에 가서도 18기의 저력을 보여주리라 믿고 있다.

OLP를 담당하는 교수님들께도 감사함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일부러라도 동생 같은 원우들과 티격태격하며 친밀도를 높이려 노력하신 김홍균 교수님, 후덕한 인심의 상징인 이한식 원장님, 젊은 누나(언니) 교수를 표방하고 매 순간 원우들에게 미소를 안겨준 이인실 교수님, 그리고 똑뿌러지는 인상으로 원우들과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상담에 나서준 박정수 교수님 등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게는 소중한 인연들이다. 생활철학의 대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사물은 실체가 아니라 외양으로 받아들여진다. 속을 들여다보는 경우는 드물며 많은 사람들은 외양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하지만 OLP 18기는 지금까지 그래왔 듯 외양이 아닌 그 실체로서 OLC에서도 주축 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환두 / OLP 18기 사무총장 / LG화학



지난해 가을, 홍보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꼭 한번 다녀보고 싶었던 서강대 OLP과정과 인연을 맺게되었다. 수업 첫날 처음 만난 분들과의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OLP의 오랜 전통인 3교시에서 시작되어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몇 번으로 금방 형님,동생 사이가 된 것이다. 수업 보다는 3교시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한 탓인지 어느날 사무총장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처음에는 바쁜 업무 때문에 극구 사양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경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중책을 맡게 되었다. 나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 덕분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원우들의 결속력이 단단해 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 매주 금요일 마다 저명한 강사진들의 다양한 주제와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었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자신도 발견할 수 있었다. 수덕사 템플스테이, 부산에서의 1박2일, 무엇보다 제주도 졸업여행은 우리 18기 원우들에 대한 애정과 마음의 정을 더욱 깊게해주었다.

한편 OLP와 인연을 맺으면서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또 아들녀석이 서강대에 입학까지 하는 겹경사를 누렸으니 OLP는 내 평생을 함께가야 할 친구가 아닐까 한다. 수료를 하고 나니 좀 더 함께 시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원우들과 나누었던 좋은 기억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소중한 만남과 인연을 이제 OLC를 통해 다시 새롭게 이어갔으면 한다. 18기 원우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우리의 만남을 이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제대학원 교학과 OLP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705-8017 • 팩스 : 02)705-8018
- Homepage : http://olp.sogang.ac.kr
- 주소 : (우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pinion Leaders Program

※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사무국
- 전화 : 031)730-6012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22번지

The World Fashion City

MARIO Outlet

www.mariooutlet.co.kr



쇼핑을 여행이라

내가 원하던 세상 모든 브랜드를 가장 즐겁게 만나보는 곳—
마리오에선 쇼핑도 즐거운 여행이 된다.

마리오 아울렛 패션타운 1·2·3관

GRAND OPEN!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카드의 고객사랑법

무려 70억의 사람들 중 당신과 코드가 맞는 단 한 사람을 찾는 일
불가능해 보이지만 당신은 그 일을 해냅니다

당신만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의 코드를 찾는 일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한카드는 그 일을 해냅니다

1등 카드사의 빅데이터로
당신만을 위한 코드를 찾아 당신만을 위한 생활을 만듭니다

Code9

신한카드 유튜브에서 고객사랑법
TV-CF를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LG전자

LG 올레드 TV의 실제 두께입니다 5.8mm



지금 당신은 이 시대 가장 앞선 TV를 보고 계십니다

백라이트를 없애 지금 보시는 두께 그대로
자연색 그대로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TV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65/55EG9600



LG OLED TV UHD
올레드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Hanwha

함께 꿈꾸는 내일은 더 크고,
함께 가는 길은 더 든든할 것입니다

동반성장의 가치와 힘을 생각하며

한화는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으로

함께 크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아는 **청정원**에서
당신이 원하는 **청정원**으로

푸드를 아는 사람들

청정원





영어로 여는 세상-
(주)타임즈코어

공감 그리고 소통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교육기업
고객에게 유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업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고객과 함께 나아갑니다.

타·임·즈·코·어

TIMES CORE BRAND IDENTITY

THE teen TIMES 중 · 고등 영자신문 www.teentimes.org	THE Junior TIMES 초 · 중등 영자신문 www.juniortimes.co.kr	THE kids TIMES 초등 영자신문 www.kidstimes.net	THE Kinder TIMES 어린이 영자신문 www.kindertimes.co.kr
phone TIMES 1 : 1 외국인 전화영어 www.phonetimes.co.kr	THE world TIMES 대학생 · 일반 영자월간지 www.worldtimes.co.kr	TIMES Academy 학원전용 프로그램 www.timesacademy.co.kr	TIMES-SLC 해외 어학연수 www.times-slc.com

Venture for Tomorrow 벤처인증기업 |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MAIN 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ISO 9001 QUALITY ASSURANCE 인증기업 | HEIDELBERG 인쇄제작물 우수기업 | KOSA 소프트웨어사업자 | THE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Most Innovative Company in Asia Best Advertising/Editorial/Design Agency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역특례지정업체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선정
'2012-2013 취업하고 싶은 기업'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종이 위에 새겨 품격 있는 간행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01 **Contents Production**

+ 02 **Design**

+ 03 **Pr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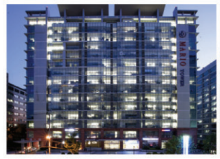
+ 04 **Marketing**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사보 | 사사 | 백서 | 지속가능보고서 >>> 기획 | 디자인 | 인쇄 | 광고촬영 | 영상물 제작 |

IBA(The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2007 Best Speciality Ad Campaign (2007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광고/인쇄물) 수상
2007 Most Innovative Company in Asia (아시아 최고 혁신 기업) 선정
2008 Best Advertising/Editorial/Design Agency (최우수 광고, 편집 대행사)
2008 Best Creative Executive (최우수 크리에이티브 경영자)
2011 Executive of the year-Advertising, Marketing & Public Relations (최고의 광고, 마케팅 · 홍보기업)

2012 Business Service –Company of the Year
(기업조직 부문 비지니스 서비스 올해의 최우수 기업)
2012 Customer Service –Department of the Year
(고객서비스 부문 올해의 기업)


구로디지털단지 본사


파주출판단지 인쇄공장



OK! Printing 1호점


OK! Printing 2호점



OK! Printing 3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1001~1003호 대표전화 (02)890-0900 www.swadcom.co.kr

KB금융그룹

스마톡S 앱을
QR코드로 손쉽게
설치하세요!

KB투자증권

더 편리해서 톡!
더 똑똑해서 톡!

톡!톡!즐겨라!

스마톡S



01 미리 설정한 조건으로 로그인 없이 자동주문
스탑주문

02 전문가의 유망종목 추천서비스
스타포트폴리오

03 펀드, 채권매매, ELS청약
다양한 투자상품 거래

04 바탕화면에서 실시간 시세조회
편리한 위젯기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고,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르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5772호 (2014.09.02 ~ 2015.09.01)

고객만족센터 1599-7000 | www.kbsec.co.kr

KB투자증권